#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27 JULY 2009













## ECONET WAY 3을 함께 하는 행정한 많더 A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 027 JULY 2009

발행인 **이병훈** Publisher **Bill Lee** 

발행처 남양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 기업본부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Center, Namyang Company

편집 오경아 Editor Kyoungah Oh
디자인 디자인모루 Design by Design MORU
인쇄 정광인쇄(주)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 Cover Story

저 푸른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꿈을 향한 힘찬 비상(飛上). 그 희망의 길을 찾아 새들은 오늘도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사진 김종민) The birds fly up again with hope to seek another way in the blue sky to realize a dream. (Photograph by Jongmin Kim)

## **ECO**

월니스 칼럼 Wellness Column

지연의 선물 The Gifts of Nature

12 이음이 전하는 자연의 맛 Bringing the Tastes of the Nature to Your Table

## Net

1 4 현장스케치 ① On the Scene

1 6 현장스케치 ② On the Scene

20 현장스케치 3 On the Scene

24 나의소중한사람 My Precious Person

## WAY

26 청강열전 Biography of Yunho Lee

30 특별 보고 Special Report

34 행복여행 Happy Trails

38 사진콘테스트 Photo Contest

40 에코넷 뉴스 ECONET NEWs

52 에코넷웨이 편집장을 마치며 Leaving the duty of ECONETWay's Editor

54 함께해요 Let's Do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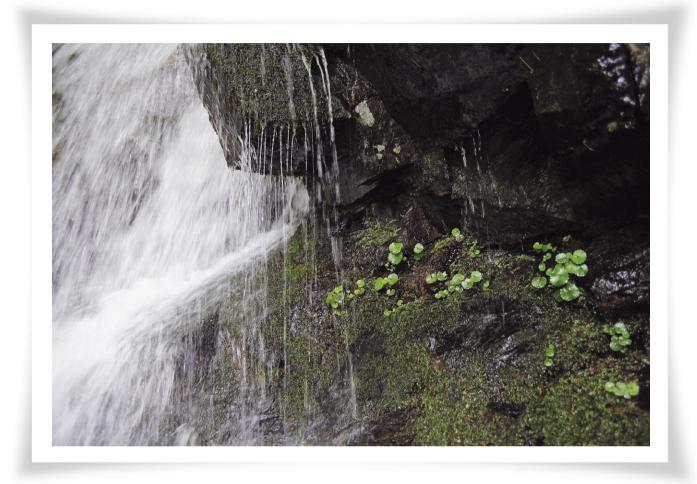


## 인생찬가

헨리 왜즈워스 롱펠로

슬픈 가락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 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 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 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엇이든 하자.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 '축복' 중에서(도서출판 비채(Viche) 발행)



### A Psalm of Life

Henry Wadsworth Longfellow

Tell me not, in mournful numbers,
Life is but an empty dream!...
Life is real! Life is earnest!
And the grave is not its goal...
Trust no Future, howe'er pleasant!
Let the dead Past bury its dead!

Act, - act in the living present!...
Let us, then, be up and doing,
With a heart for any fate;
Still achieving, still pursuing,
Learn to labor and to wait.

- Excerpted from *Blessing*, a selection of English poems by Young-Hee, Chang, published by Viche.

## 생활건강의 삼각공식

## Triangle of healthy lifestyle

운동을 왜, 어떻게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근육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려면 적합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exercise a part of lifestyle.

One should exercise regularly and moderately to stay fit and to slow down ageing process.

건강이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운동은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 사전에 담긴 '건강' 과 '운동' 의 뜻만 보더라도 건강과 운 동이 바늘과 실처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본은 심신의 건강일 것이다. 또한, 건강을 지키고 유 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건강=행복 이라는 삼각 공식이 성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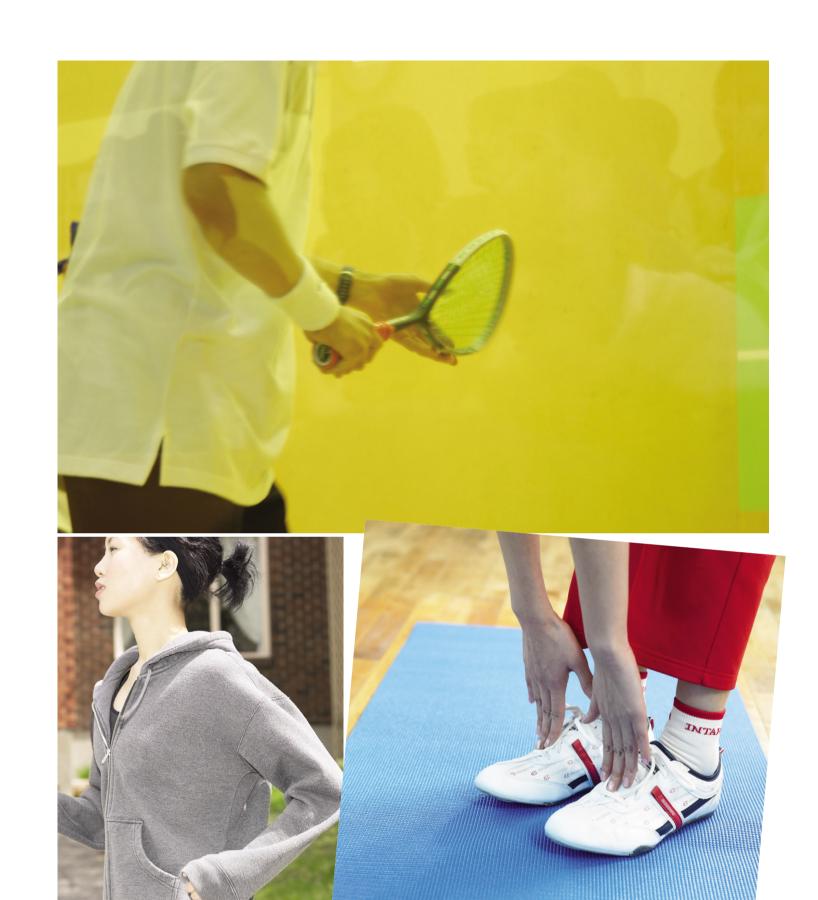
많은 에코네시안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책상 앞에서 업무를 본다. 그런데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퇴근할 무렵이면 운동은 고사하고 쉬고 싶은 마음에 만사가 귀찮을 때가 많다. 적당하고 꾸준한 운동이 건강한 장수와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못 하게 된다. 연초에 어렵게 시작한 운동이 한 달은 커녕 작심삼일이 되고 애써 장만한 운동기구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험이 종종 있을 것이다.

운동을 왜. 어떻게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하는지 살필 필요

According to the dictionary, health means "physically and mentally fit state free from illness." Exercise means "moving one's body to get fit and remain healthy." As we can clearly see in the meaning of two words, health and exercise are two inseparable things like thread and needle. Generally, happiness means "a state of feeling satisfaction and joy in life." One of the prepositions of being happy is to remain healthy in both physical and mental sense. Also, one of the prerequisite to remain healthy is exercise. Consequently, a formula of exercise=health=happiness can be sustained.

Many Econetians work sitting at their desks for a considerable part of a day. Thus, it is understandable that many of us get tired at the end of a day and want to get some rest rather than going to the gym to work out although all of us know regular and moderate exercise helps us to lead a healthy and lengthy life. But knowing that is one thing and exercising it in life is another. Everybody would have experienced that New Year's resolution to work out regularly lasts only for a couple of weeks, and expensive equipments getting dusty in a few months.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exercise a part of lifestyle. One should exercise regularly and moderately to stay fit and to slow down ageing process. Once we stop exercising, the muscles go back to its previous status and so is the aging



가 있다. 근육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려면 적합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운동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근육은 다시 원상 태로 돌아가 노화가 진행한다. 근육과 운동은 일촌뻘이고 게으름과는 상극이다.

적합한 운동은 종류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의 강도, 시간, 빈도 또한 중요하다. 즉,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근육과 체력의 상태를 확인한 후 체력에 알맞은 운동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혹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 스스로 맥박수를 확인하여 적당한 운동 강도를 찾는 방법이 있다. 220에서 자기의 나이를 뺀 숫자가 바로 자신의 최고 맥박수가 된다. 가령 나이가 40세라면 220~40=180이 최고 맥박수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최고 맥박의 70~80% 정도가 적당한 운동 강도라고 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운동은 무궁무진하다. 가령 바쁜 일상생활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는 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많고, 근육강화, 특히 다리와 무 릎의 힘을 키우는 데 아주 적합한 생활운동이다. 게다가 다리품



process. In other words, exercise is a best friend of muscles and adversity of laziness.

It is important to pick the right kind of exercise, but intensity, time and frequency of the exercise is also critical. If it is possibl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get help of a professional trainer to check the

current status, let the expert pick the best exercise so that one can gradually build up the intensity of exercise.

If a professional help is not available, one can also check his or her own pulse to find appropriate intensity of exercise. Highest pulse rate equals 220 minus the person's age. If a person is 40 years old, 220-40=180 is his or her highest pulse rate. Then, 70 to 80 percent of the highest rate is the most appropriate intensity of exercise.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re are a plenty of exercises we can practice in our daily lives. One of the examples would be climbing steps. It consumes 외에 드는 것이 없어서 경제성도 그만이다. 안전성 또한 바른 자세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면, 운동 효과도 효과지만 조깅보다 사고율이 20% 적다고 한다.

생활 속 운동과 당뇨병 발생률의 관계를 연구한 통계에 의하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당뇨병 발생률은 20%가 줄고 꾸준히운동을 하면 50%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심장 및 혈액 순환기관은 나이를 먹는데 따라 약해지는데 45세가 넘으면 혈액순환이 때10년마다 9~15% 떨어진다. 그러나, 운동을 하면 혈압도 내리고 HDL을 상승시켜 지방은 감소하고 반면에 심장은 강화된다. 또한 뼈에도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 촉진을 막아 노화방지에도도움이 된다. 나이를 먹으면 콩팥의 기능도 감소하는데 운동을통해 그 기능을 20%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 기초신진대사 유지 및 증가, 폐 기능 강화, 질병예방, 심리적 젊음 유지 등, 규칙적인 운동이 노화방지와 장수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도움을주는가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글 | 김석원 부장 | 비서팀 | 에코넷 미국 홀딩스

plenty of calories per time, and also a good way to build muscles in legs and knees. All you need to start this exercise is a pair of shoes and a staircase. If you maintain a good posture and be careful not to put too much strain on your joints, there are 20% less change of injury compared to jogging.

According to a research about correlation between exercise and diabetes, simple exercise can bring down occurrence of diabetes by 20%, and regular exercise can reduce the percentage to 50%. Heart and blood circulation declines with aging. Over 45, blood circulation declines 9 to 15 percent per every 10 years. However, exercise helps bring down blood pressure and raise HDL(High-density lipoprotein=good cholesterol), reducing body fat and strengthens heart. Also, exercise prevents osteoporosis and slows down aging process. With age, kidney function declines, but exercise helps recovery of kidney function by 20 percent. Benefits of regular exercise are immeasurable. They include: maintaining and increasing basal metabolism, strengthening lung function, preventing illness, retaining mental vitality and etc.

By Greg Kim Manager | Secretary Team | ECONET USA Holdings

#### 운동과 일상활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모와 효과

운동 / 활 <del>동종</del> 류	시간당 소모 칼로리(kcal)	심장혈액순환	근육힘	근육지속성	유연성	종합적 육체의 조정
농구	360-660	우수	양호	양호-우수	양호	우수
골프(카트 타지 않고 걷기)	300-360	보통	보통-양호	보통-양호	보통	양호
조깅(한 시간에 8km)	600	우수	양호	우수	보통	양호
걷기(약 5km/시간)	300	양호-우수	양호	양호	양호	보통-양호
걷기(약 8km/시간)	480	양호-우수	양호	양호-우수	양호	보통-양호
수영	360-750	우수	양호	우수	우수	양호
줄넘기(일분에 60번 뛰기)	800	우수	양호	우수	보통	우수
에어로빅	360-480	우수	양호	우수	우수	우수
자전거(한 시간 속도 20km)	600	우수	양호	우수	양호	양호
테니스(단식)	480	양호	양호	양호-우수	우수	우수
볼링	240	보통	양호	보통	보통	우수
스키(8km)	700	우수	양호	우수	우수	우수
계단 내려가기	420					
계단 올라가기	800					
운전	168					
정원가꾸기	220					
집안청소	250					
잔디깎기	300					
눈치우기	420					

#### Calorie consumption during exercises and other activities

Activity/exercise	Calories(kml)	Cardiac blood circulation	Muscle strength	Muscle durability	Flexibility	Comprehensive body adjustment
Basketball	360-660	excellent	good	good-excellent	good	excellent
Golf(without trolley)	300-360	moderate	moderate-good	moderate-good	moderate	good
Jogging(8km/hr)	600	excellent	good	excellent	moderate	excellent
Walking(5km/hr)	300	good-excellent	good	good	good	moderate-good
Walking(8km/hr)	480	good-excellent	good	good-excellent	good	moderate-good
Swimming	360-750	excellent	good	excellent	excellent	good
Jumping rope(60times/min)	800	excellent	good	excellent	moderate	excellent
Aerobics	360-480	excellent	good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Cycling(20km/hr)	600	excellent	good	excellent	good	good
Tennis(singles)	480	good	good	good-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Bowling	240	moderate	good	moderate	moderate	excellent
Skiing(8km/hr)	700	excellent	good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Descending steps	420					
Climbing steps	800					
Driving	168					
Gardening	220					
Cleaning	250					
Mowing	300					
Clearing snow	420					

## 도라지난초

## Border Silver

여름 햇살이 점점 강열해지면 더욱 까매지는 얼굴을 고민하게 된다. 거뭇거뭇 일어나는 기미, 주근깨를 헤아리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이 바로 미백 화장품이다. 그런데 미백 화장품 하면 생각나는 식물이 있으니, 몸 속에 한가득 강력한 미백효과를 품고 있는 '도라지난초' 이다.

도라지난초는 외떡잎식물로 백합과에 속한다. 바닷가에서 자라고 키는 대략 50~100cm이다. 굵은 뿌라줄기를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잎은 두 줄로 서로 얼싸안으면서 잎집 (잎자루가 칼집 모양으로 되어 줄기를 싸고 있는 것)을 이룬다. 5~6월에 잎 사이에서 꽃줄기가 자라 많은 꽃을 피우는 복총상이다. 복총상 꽃차례란 꽃 가지가 2개 이상으로 갈라지고 나서 마지막 가지 끝에 꽃이 달리는 꽃차례를 가리킨다. 줄기는 직립하고 강인하며 원주형에 가깝다. 꽃 빛깔이 도라지 꽃과 같고 잎은 붓꽃과 비슷하기 때문에 도라지난초라고 한다.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한다. 산비탈의 초지 또는 성긴 숲 속에서 자라며, 연중 채취가가능하다. 이 속의 식물은 아시아·마다가스카르·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지에 20중 내외가 자라고 있다.

예부터 한방에서는 도라지난초를 산관란(山菅蘭)이라고 부르 며, 깨끗이 씻어서 절편한 다음 햇볕에 말려 해독소종(解毒消腫에 썼다. 가루를 내어 고름이나 종기와 같은 농종 증상에 사용하였는 데 내복은 금하였다.



E라지난초 Border Silver

As sunlight becomes stronger during the summer, keeping your skin light-colored becomes a major task for women. Looking at the freckles on the face, women reach for cosmetic products with whitening effect. Whitening reminds me of a plant also known as "Border Silver" which has intensive whitening effect.

Border Silver is a monocotyledonous plant of Liliaceane. It usually grows on seashores and is approximately two to four feet tall. A perennial plant which is spread by extensive rhizome, its strap-like foliage grows in two rows to form leaf sheath (blade-like petiole which surrounds the stem). Peduncle grows among the foliage in May and June and flowers in panicle inflorescence. A panicle is a definite inflorescence that is multibranched and each branch has terminal flowers. The stem is straight, strong and has a cylinder-like shape. The flower is lavender-purple, and its foliage resembles that of an I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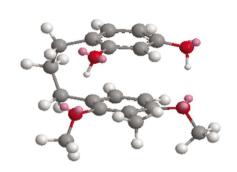
Usually, Border Silver is planted in gardens or in pots for ornamental purpose. It grows in a broad ecological range from grasslands, seashores, and open scrubs to alpine, open lowland forests and can be found year-round. There are 20 or so plants belonging to the same genus occurring in Asia, Madagascar,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oriental medicine, Border Silver was called "Sangwanran." After being cleaned, dried and then powdered, it was used to treat swelling and 마침내 2009년 니비톨(Nivitol)이라 이름 붙인 신소재를 세상에 선보였다. 니비톨의 주성분은 환원형 구조의 찰콘(Chalcone)인데, 우리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의 생성 작용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Unigen began its effort to extract whitening material from Border Silver from 2003, and finally developed a new material called "Nivitol" in 2009.

유니젠은 2003년부터 도라지난초로부터 강력한 미백소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The main substance of Nivitol is chalcone in reduced structure.

It showed remarkable effect in preventing melanin-a primary determinant of skin color- production.



유니젠은 2003년부터 도라지난초로부터 강력한 미백소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2009년 니비톨(Nivitol)이라 이름 붙인 신소재를 세상에 선보였다. 니비톨의 주성분은 환원형 구조의 찰콘(Chalcone)인데, 우리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의 생성 작용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멜라닌은 타이로시네이즈(Tyrosinase: 효소)와 타이로신(Tyrosine: 기질)이 결합하여 생성되는데, 니비톨은 타이로신과 유사한 구조로서 타이로신보다 먼저 타이로시네이즈와 결합하여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 하지만 도라지난초에는 이 성분이 매우 적게 들어 있어서, 고함량, 고효율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도 유니젠은 다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공정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니젠이 개발한 니비톨은 지금까지 강력한 미백소재로 알려져 있는 코직 에시드(kojic acid)보다도 20배나 강한 미백 효과를 갖고 있다. 유니젠의 니비톨은 세계의 유력한 전문 학술지인 *Drug of the future*(33권 11호, 2008년, pp. 945-954, USA)와 *Chemical Pharmaceutical Bulletin*(56권 9호, 2008년, pp. 1292-1296, Japan)에도 연구 내용이 소개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글 | **손은정** 전임연구원 | 천연물연구팀 | 유니젠

boil, but not for internal use. The powder is usually applied to festering

Unigen began its effort to extract whitening material from Border Silver from 2003, and finally developed a new material called "Nivitol" in 2009. The main substance of Nivitol is chalcone in reduced structure. It showed remarkable effect in preventing melanin-a primary determinant of skin color- production. Melanin is synthesized from combination of tyrosinase and tyrosine. The structure of Nivitol is similar to a tysosine's, so it combines with tyrosinese faster than tyrosine. As a result, it prevents synthesis of melanin. Because Border Silver contains very low level of Nivitol, so it was difficult to make a concentrated and highly effective substance. However, Unigen enabled the process through many years of research.

Nivitol, developed by Unigen, is twenty times more effective in skin whitening than kojic acid which has been known as the strongest whitening material. Researches about Nivitol was published in influential journals such as *Drug of the future*(Vol. 33-11, 2008, pp. 945-954, USA) and *Chemical Pharmaceutical Bulletin*(Vol. 56-9, 2008, pp. 1292-1296, Japan) and gained attention throughout the world.

By Eun-Jung Son Researcher | Natural Product Team | Unigen

#### ECO 이음이 전하는 자연의 맛 Eum: Bringing the Tastes of Nature to Your Table

한국전통 보양식 중 여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으니. 바로 삼계탕이다.

닭에 한국의 인삼을 넣고 푹 고아서 먹는 삼계탕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최고의 영양식이다.

어린 닭을 이용하면 영계백숙이라고 한다.

이번에 이음은 삼계탕을 활용하여 국수를 시워하게 말아먹는 냉닭국수를 만들어 보았다.

If I have to choose just one Korean dish for summer,

it is Sam-gye-tang which can be described as Chicken Ginseng Soup.

It is known for its nutritional value and people of all ages from children to seniors love it!

If you use spring chickens instead of fully grown chickens, it is called spring chicken soup.

Eum reveals its new recipe of cold chicken noodle, which is an ingenious variation of Korea's traditional Sam-gye-tang.

글 | 박경진 | 이음 대표 By Kyungjin Park | Eum F&B



## 시원한 여름맞이, 닭고기로 보양하고 시원한 냉국수까지!

### Cool summer with cold noodles in chicken broth- plus it's good for your health!

닭고기는 육질을 구성하는 섬유가 가늘고 연하다. 또 지방질이 근육 속에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 고 소화흡수가 잘 되다.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질 섭취가 필요한 임사부는 예부터 미역국에 닭을 넣어 끓여 먹 었다. 닭고기에는 피부미용에 이롭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꼭 필요한 단백질과 메치오닌을 비롯한 필수아 미노산이 많아 새 살음 돋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 닭 날개 부위에 많은 뮤신은 성장을 촉진하고 운동기능을 증진시키며 단백질의 흡수력을 높여준다. 닭고기와 곁들여내는 인삼은 체내 효소를 활성화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회복을 앞당긴다. 마늘은 강정제 구실을 하고, 대추는 위를 보하면서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얼음을 띄워 국수를 말아 시원한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보자. Fiber in chicken meat is thin and tender. Also, it tastes less rich than beef or pork because chick-

en meat is not as fatty as others. Also, it is good for digestion. Pregnant women who need quality protein and fat used to add chicken in their seaweed soup. Chicken meat has plenty of protein and essential amino acids such as Methionine which is good for both skin and health.

Mucin in chicken wings accelerates growth, improves muscle function and helps absorption of protein. Ginseng vitalizes enzymes in body, accelerates metabolism and cure fatigue. Garlic boosts energy in the body, and red dates protect stomach and prevent anemia.

A cool bowl of noodle with chicken soup and ice would be a perfect meal for a hot summer day!

#### 조리방법 Cooking directions

- 붓고 통마늘, 대파, 양파, 통후추, 수삼, 대추 를 넣어 한 시간 가량 끓인다.
- 국물을 걸러 냉장고에 보관한다.
- 닭고기를 건져 내어 육질만 찢어 놓는다.
- **4** 오이와 배는 채를 썰어 준비한다.
- 국수를 삶아 찬물에 헹구어 준비한다.
- ⑥ 준비된 국수에 육수를 넣고 얼음을 첨가한 다. 그 위에 오이와 배 실고추를 얹고 취향 에 따라 겨자를 넣어 먹으면 된다.
- ① 닭을 깨끗이 씻어 다듬은 다음 냄비에 물을 ① Clean and dry chicken and put it in a pot with water. Add cloves of garlic, leek, onion, whole pepper, ginseng, and red date and boil for an hour.
  - 2 Strain the chicken soup through a sieve and keep the broth in a refrigerator.
  - 3 Tear the chicken meat into thin slivers
  - 4 Slice cucumber and pear
  - 6 Boil noodle and rinse it with cold water
  - 6 Add chicken broth and add some ice. Decorate it with chicken shreds, cucumber, pear and red pepper. For flavor, add some mustard before serving.

#### ● 재료(6인 기준) ingredients(6 servings)

닭 1.5kg 통마늘 5개

대파 50g 양파 70g

통후추 조금

수삼 20g

대추 20g

오이 100g

배 100g

실고추 조금 겨자 30g

국수 1kg

whole chicken(1.5kg)

five whole cloves garlic

50g of leek

70g of onion

a bit of whole black pepper

20g of ginseng

100g of sliced cucumber

100g of pear

a bit of dried red pepper

30g of mustard

1kg of noodle

#### 닭고기의 부위별 영양성분 Nutrient composition of chicken

 부위	 단백질	 지방	 칼로리	 필수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리놀레인산
Part	Protein(%)	Fat(%)	Calories(kcal)	Essential fatty acid(%)	Unsaturated fatty acid(%)	Linoleic acid(%)
가슴살 breast	22.9	1.2	101.8	16.8	67.1	15.9
다리살 leg	18.8	3.2	104.0	16.5	68.4	15.7
넓적다리살 Thigh	19.7	2.8	104.0			
날개 wing	17.6	14.9	204.5			

<sup>&</sup>quot;자연과 사람을 잇는다"고 하여 '이음'입니다. "Eum" means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JULY 2009 13

#### NET 현장스케치● On the Scene●



환영사를 하고 있는 유니베라 캐나다 법인장(대행), 비잔 모바페이. General Manager Bijan Movafegh welcoming the attendees.

유니베라 캐나다 공식 오픈

ECONET Welcomes Univera Canada 유니베라 캐나다 지사의 공식 오픈을 기념한 오픈하우스 행사가 2009년 3월 27일 150명 이상의 임직원과 어소시이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유니베라의 이병훈 총괄사장을 필두로, 본사의 핵심 경영진이 참석하였다. 경영진 연설, 테이프커팅을 비롯해 각종 다과가 제공되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제 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도, 유니베라는 공격적으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재 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수는 오랜 역사와 견실한 제품군을 보유한 두 훌륭한 기업의 만남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유니베라의 비전에 합류하고자 하는 열망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에 코넷의 부회장이자 CEO인 스튜어트 오킬트리의 말이다.

"유니베라 캐나다의 일인당 매출액은 미국을 웃돕니다. 헬스 캐

Univera Canada's official grand opening took place with an open house on March 27, 2009 and was a huge success with over 150 people attending. It was attended by Univera's top executives and highlighted by the presence of Chairman Bill Lee. The event featured a ribbon cutting ceremony, speeches by the executives, refreshments and a lot of fun.

Stuart Ochiltree, Vice Chairman and CEO of ECONET, stated, "During a time at which many companies are contracting, the ECONET and Univera have the strategic and financial resources to seek aggressive growth opportunities. The transaction represents the unification of two great companies with a longstanding history of solid product and business performance – coupled with a desire to be a part of the life-changing vision that exists at Univera."

"With per capita revenues from Univera Canada exceeding that of the United States, having these resources - including an active Health Canada



이병훈 총괄사장의 연설 Chairman Bill Lee addressing the crowd

유니베라 캐나다 본사 전경 Univera Canada's headquarters





이병훈 총괄사장과 귀빈들이 유니베라 캐나다의 공식 오픈을 위한 리본 절단식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니베라 캐나다 법인장(대행) 비잔 모바페이, 몬트리올 한국 영사관 조재현 부총영사, 유니베라미국 CEO 리건 마일즈, 마톨 보태니컬 CEO J. F. 로버트 볼덕, 에코넷 이병훈 총괄사장, 몬트리올 한국 영사관 김종훈 총영사, 에코넷 CFO 성한용, 에코넷 CEO 스튜어트 오킬트리.

Chairman Bill Lee and other dignitaries preparing to cut the ribbon to officially open Univera Canada From left to right Bijan Movafegh, General Manager - Univera Canada; Jaehyun Cho, Deputy General Consul - South Korean Consulate in Montreal; Regan Miles, CEO - Univera, Inc.; J.F. Robert Bolduc, CEO - Matol Botanical; Bill Lee, Founder and Chairman - ECONET; Chong Hoon Kim, General Consul - South Korean Consulate in Montreal; HY Sung, CFO - ECONET; and Stuart Ochiltree, CEO - ECONET

나다 라이센스를 비롯하여 탄탄한 사업기반을 보유한 유니베라 캐나다는 캐나다 시장에서 앞으로도 성장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마톨 사의 국제적인 인프라와 자원은 앞으로 유니베라가 국제적인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유니베라 CEO인 리건 마일즈가 말했다.

유니베라 캐나다는 퀘벡 주 몬트리올의 뿌앵뜨 끌레르(Pointe-Claire)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니베라 캐나다 법인장(대행)인 비잔 모바페이 이하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약 2800㎡의 면적에 2층으로 이루어진 본사 건물은 약 1100㎡의 창고와 1700㎡의 사무실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최대 130명 수용 가능한 대규모 미팅 룸이 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주 7일 제공된다.

모바페이는 21년간 직접판매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다. 마톨 사에서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지난 12년간 마톨 사의 COO로 재직한 바 있다. 오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니베라 캐나다의 지휘를 맡을 최적임자로 선정되었다.

"유니베라 캐나다의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이 훌륭한 기업에 합류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회사의 발전을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모바페이가 각오를 밝혔다.

글 | **롭 팍** 이사 | 유니베라 캐나다 조나단 토노스 코디네이터 | 유니베라 캐나다



행사 시작 전 로비에 모인 어소시이트들 Associates gathering in the lobby before the festivities begin

site license - will help us better serve the Canadian marketplace," Univera CEO Regan Miles said. "Matol's established internation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will help poise Univera to more effectively and expediently take advantage of international expansion opportunities," Miles said.

Univera Canada is headquartered in Pointe-Claire (Montreal), Quebec with 24 employees led by General Manager, Bijan Movafegh. Its two-floor, 30,000 square feet facility is comprised of a 12,000 square feet warehouse and 18,000 square feet of office space. What is exciting for Univera Associates in the area is access to a 130-person capacity in-house meeting room available to them free of charge for training sessions and meetings seven days a week.

Movafegh brings over 21 years experience in the Direct Selling industry. He worked his way up through various departments in Matol and was the Chief Operating Officer for the past 12 years. His experience and knowledge is what makes him the perfect candidate to lead Univera Canada.

"I know I speak for all of Univera Canada employees when I say that we are very proud and excited to be part of this fine organization, and we anticipate being a significant part of the company's growth as a whole," stated Movafegh.

By Rop Park Director | Univera Canada

Jonathan Tsonos Coordinator | Univera Canada

이병훈 총괄사장과 비잔 모바페이를 비롯한 유니베라 캐나다 임직원들 Chairman Pill Lee and Pilan Moveforth with some of Universification



## 유니베라 임원의 북미 지역 순회 방문

## Leaders Travel across North America to Support Associates



유니베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Platinum Associate Glen Crawford (left) talks about Univera with attendees.

유니베라 미국 CEO 리건 마일즈. CSO 스티븐 철니스키. 북아메리카 판 매 담당 사장 리치 레즈게이터스 등 유니베라 북미 지역 임원진은 지난 봄 최선을 다해 기업 활동에 종사하여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북미 전역 의 어소시이트(판매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역 순회에 나섰다.

유니베라 캐나다의 새 창고 개장을 기념하여 캐나다 몬트리올에 모인 에 코넷 임원들은 유니베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12개 도시를 2주 동안 순 회하는 투어를 전개하였다. 금번 투어는 고 이연호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 아 유니베라의 비전과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유니베라의 일선 어소시이트 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많은 신규 참석자 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니베라의 고객과 어소시이트들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행사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다수 일선 어소시이트 리더들은 임원진의 방문이 제품에 대한 고객과 어소시이트들의 열정을 환기시켰을 뿐 아니라. 여름 컨벤션 행사를 앞두고 일선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플로 리다 주 탐파에서는 유니베라-마톨의 어소시이트들이 임원진을 처음 대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행사를 주최한 어소시이트 리더. 바브 리핀코트는 이렇게 말했다. "마톨의 어소시이트들은 유니베라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마톨과 유니베라의 결합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 글 I **에이프릴 챈** 유니베라 카피라이터 · 웹 컨텐트 코디네이터



등록 창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Volunteers standing by the registration desk during a Road Tour event.



유니베라 미국 CEO 리건 마일즈(중앙)가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CEO Regan Miles (center) greets attendees

Univera, North America's executive team of CEO Regan Miles, CSO Stephen Cherniske, and President Rich Razgaitis again took to the open road this past spring to support our Associates across North America who work tirelessly to bring all that our Company has to offer to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This spring's tour began in Montreal, Canada, where ECONET leaders gathered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e Univera Canada warehouse. The team's tour then took them to 12 cities in under two weeks, against the backdrop of Univers's 10th Anniversary- which coincides with Founder's Day. It was a precious opportunity for Corporate leaders to bolster the efforts of our Field Associates and a healthier and more prosperous future." bring Univera's mission and vision, given to us by Lee, Yunho, to all who attended. In the end, we were pleased to find that we were able By April Chan Universa Copy Writer · Web Content Coordinator

to gain to increase Univera's Customer and Associate base with high levels of first-time visitors from our audiences.

Many Field leaders who generously hosted these events report that the executives' visit helped to reawaken their Customers' and Associates' passion for the products and well as reinvigorate their Teams ahead of our summer Convention. A special stop in Tampa, Fla., was the first introduction that many Univera-Matol Associates had to our executives, and host Barb Lippincott reported, "Our Matol team feels honored to now be a part of the Univers family. It is an opportunity that will allow all of us to help even more people achieve



유니베라 리더의 전진과 발전을 다짐하며 Pledging everlasting growth of Univera Leaders

CHANGE 2009 유니베라 리더 전진대회

꿈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CHANGE 2009 Univera Leaders' Meeting

## Realize your dream



●국내 최고 MC 신동엽과 가수 이선희 Famous show host Dongyeop Shin and singer Sunhee Lee ❷인기가수 박현빈의 축하공연 UP's favorite singer Hyunbin Park's congratulatory performance ③최우수 UP 김진숙 부장의 화려한 등장 The Queen of UPs Jinsook Kim's grand appearance

꿈을 이루어 행복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엔 앞으로 꿈도 함께 일구어나가자는 다부진 결의도 있었다.

2008년 우수 활동 유피들에 대한 시상과 유니베라의 새로운 대리 점 운영제도인 UPS(Univera Planner System)의 선포를 겸한 2009 유니베라 리더 전진대회가 에코넷 이스트 3사 임직원을 포함 하여 약 4,500여명의 유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5월13일 올 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People who achieved their dreams gathered and pledged to grow their dreams together

The 2009 Univera Leaders' Meeting was held in the Olympic Gymnastics Stadium on May 13th, 2009. This event was aimed to award UPs who showed outstanding performance in 2008, and to announce the Univera Planner Sytem(UPS) which is a new system of operating distributors. Employees from the three ECONET East companies including approximately 4,500 UPs participated in this event.



#### 2008년 최우수 유피 시상

리더 전진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유피들 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시상식을 갖는 것이다. 올해 시상자는 총 47명이었다. 이 중 최우수 경영관리자상인 여왕의 영광은 영업1본부 소속 송내남부대리점 김진숙 부장이 차지했다.

'오페라의 유령' 테마에 맞추어 아리아를 부르며 화려하게 등장한 김진 숙 부장은 고객을 진정 소중히 여기며 유니베라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전하 는 명실공히 진정한 유니베라 플래너였다. 아울러 그녀는 후배 유피들도 열심히 육성하는 아름다운 선배였다. 그녀는 "유니베라와 함께라면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리더 전진 대회의 많은 이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 유피를 위한, 유피에 의한 UPS 전국 실행 선포

시상식과 함께 2009년부터 새로이 출범한 UPS의 전국적 실행을 알리 는 선포식이 있었다. 이병훈 총괄사장은 힘차게 UPS를 선포하면서. 이 자 리에 함께한 그리고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유피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며 오랫동안 함께 일하자는 메시지를 전 했다. UPS 제도 전국 실행 선포와 함께 전진대회 참석자들은 UPS 제도 의 운영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진화와 성장을 위한 발돋움임을 가슴에 새겼다.

글 | 박정아 기자 | 고객지원팀 | 유니베라 한국







이병훈 총괄사장이 행복한 웃음을 짓는 김진숙 최우수 유피에게 시상하고 있다. Chairman & CEO Bill Lee awards the Queen of UPs Jinsook Kim who is smiling happily.

#### 팀별로 모여앉은 간부 유피들이 사전응원전에 열심이다

Executive UPs engaged in preliminary cheering for their teams.



The Leaders' Meeting purports to award UPs who put their best efforts during the last year to encourage them. This year, there were 47 awardees and among them, the premier award went to Jinsook Kim, a department head of operation team at Southern Songnae distributor.

She made an appearance while singing a song featured in "Phantom of the Opera." Kim is truly a supreme Univera Planner who values customers and spreads Univera's vision of health and beauty. Not only stepping up performance for herself, she was a beautiful person who supported her junior UPs by training them with sincerity. Kim had a dream that was "With Univera, everything is possible" and she had definitely shown everyone gathered at the event that By Jeong Ah Park Team Manager | CS Team | Universa Korea her dream really did come true.

#### Announcement of Nationwide UPS system

Along with the award ceremony, Universa announced the nationwide launch of the Univera Planner System(UPS). As Bill Lee announced the UPS, he gave a speech to the UPs gathered at the event and to those who could not be there. His message was that he always appreciates and thinks highly of their efforts, and hoped that all UPs stay and grow with the company for a long time. The announcement was an opportunity for all participants to remember that the UPS system is not merely a minor change, but a step towards further growth and development of ECONET.



## 우리는 한가족! We are Family!

ECONET TO THE PROPERTY OF THE

고객지원팀 식구들 Some of the Care Team Family

제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곧바로 머리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은 저희 고객지원팀 직원들입니다.

개개인 하나하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정적인 전문가들인데다가, 한데 뭉치면 항상 침착하고, 따뜻하며, 끈기 있게 성공을 추구하는 최고의 팀이 됩니다. "모든 고 객들을 만족시킨다"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 받아,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추구하는 꾸준한 모습을 지켜보면 서 우리가 이루어낸 뛰어난 성과를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유하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1월 제가 처음 유니베라에 입사했을 때, 제가 맡게 될 중대한 임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였습 니다. 몇 명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다른 사람들 은 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겪게 될 변화(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를 예상했기 때문이

었겠지요. 속으로는 여러 생각들을 했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다년간 제가 축적한 경험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에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배워야할 사람은 바로 저이고, 앞으로 그들이 제 선생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언제나 팀원들을 신뢰해도 된다는 것입



학로위 축제 Halloween fun!

As I reflect on the people in my life that are precious to me, the members of the Univera Care Team come immediately to mind.

As individuals, they are professionals with a passion for providing unsurpassed service excellence. Together they create a dynamic and unflappable team that is warm, steadfast, and committed to success. Their mission is a daunting one: "Delight Every Caller". I am privileged to witness this extraordinary accomplishment every day as they continue to remain laser focused on consistently exceeding this goal.

When I joined Univera in November of 2006, I had no idea the journey I was about to embark on. I was warmly welcomed by some, and cautiously welcomed by others. I am sure they wondered about chang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at would be headed their way. Whatever their inner feelings, I was warmly embraced by all. I was anxious to 'teach' and share my years of experience. I did not know at that time, that it would be I who was the student, and they who were the teac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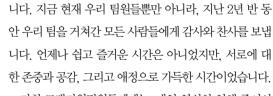
I have learned that I can really count on them, always. They NEVER let me down. Anything I ask of them, be it to work late, come in early, weekends, late nights, you name it. From taking calls, to working emails and faxes, to serving our customers in the store, they endlessly switch roles in a

니다. 야근이나, 새벽에 출근하라거나, 주말 근무 등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고,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때때로 고객의 끊임없는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업무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즐겁게 일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곁에서 저를 도와 주고, 기 댈 사람이 필요할 때는 말없이 저를 지지해 주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곤경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겪었던 경 험이 항상 즐겁거나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팀원들은

힘든 여정에서 저에게 최고의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개인적인 문제나 업무 상의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는 우리 팀원들의 모습에 항상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물이 날 때까지 함께 웃고, 웃음이 나올 때까지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출산, 가족의 장례식이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팀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팀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을 것입



저희 고객지원팀원들에게는, 매일 열심히 일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존중할 뿐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항상 바르게 일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 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게 소중한 사람이며, 여러분의 일 원으로서 받아들여 준 데 대해 언제까지나 감사하는 마음 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팀원들과 함께 할 날 들이 기대됩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 테리로부터.

글 | **테리 베이커** | 고객지원팀 | 유니베라 미국

moment's notice to meet the constant demands of our customers. Not only do they do it, they do it with a positive and fun attitude.

When I need help, they are there to assist. When I need a hug, they embrace me. When I make mistakes, they forgive me.

They say that adversity makes one stronger. This I must attest is true. And, although our journey is not always a joyous or celebratory one, I wouldn't want to be accompanied by anyone other than those on the Care team. Their handling of daily challenges (both personal and professional) is nothing short of miraculous. We have laughed until we cried, and cried until we laughed. We have celebrated weddings, and births, mourned losses, and tragedies. Each one brings



안젤라 댄마이어와 테리 베이커 Angela Danmeyer and Teri Bake



반갑게 어소시이트들을 대하는 아메드 베르살리 Ahmed Bersali on the phone delighting our Associates

us closer together, and our lives will forever be affected, regardless of where life's journeys take us. I celebrate and appreciate not just those that are on the Team today, but to all those that have passed through our doors over the last 2<sup>1/2</sup>years. It has not always been an easy journey, but it's one that been filled with respect, compassion, and love.

To my Care Team, thank you for all you do every day. Not only do you each have my respect, and gratitude, you also have my complete trust to always do the right thing. You are so very precious to me, and I will be eternally grateful to be a part of your family. I look forward to our future together today, more than ever.

With love & respect, Teri

By Teri Baker | Director of Customer Care | Univera USA

## 마지막 약속 Last promise

책상은 생전 아버지, 이연호의 모습 그대로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당신이 보시던 성경과 몇 권의 책이 책꽂이에 단아하게 꽂혀 있고, 오른쪽에 놓여 있는 원통형 필통에는 볼펜 몇 자루가 담겨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수첩 몇 권이 가지런하다. 떠들어보지 않아도 병훈은 잘 알았다. 아버지의 다이어리에는 그 날 그 날의 시간 약속과 회사의 매출 상황, 월간 계획, 연간 계획이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 있을 터. 수첩을 넘기며 꼼꼼히 정리된 아버지의 필적을 확인하던 병훈은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안경을 벗었다.

병훈이 책상 옆에 놓인 캐비닛을 열었다. 이런저런 장부들이 차곡차곡 정돈되어 있었다. 서류봉투들이 꽂혀 있는 한쪽에, 대학노트 여러 권이 눈에 띄었다. 스무 권도 넘는 듯한 공책들이 등을 맞추어 정렬해 있었다. 병훈 은 그 중에서 집히는 대로 대학노트 한 권을 뽑아 들었다. 아무 표시도 없는 평범한 공책이었다. 표지를 넘겼다.

"수술을 한 지 두 달이 되었다. 어제는 진눈깨비가 내려 미끌미끌한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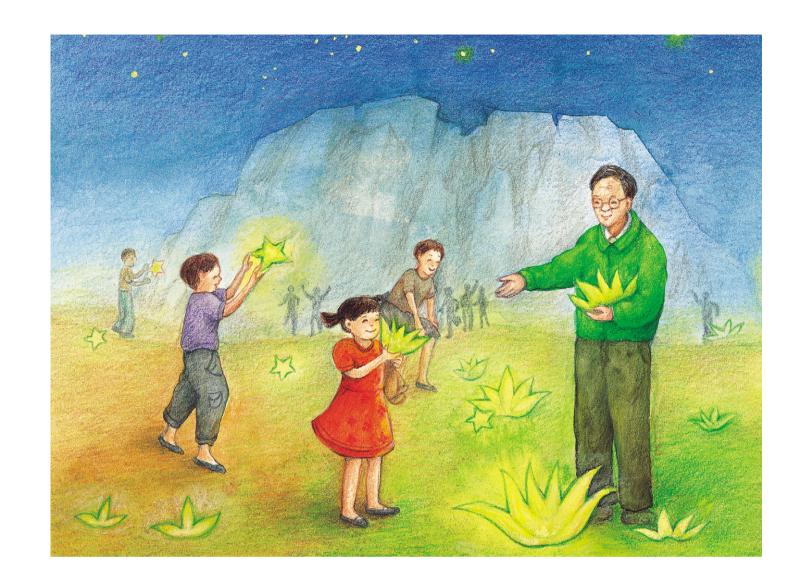
The desk was clean and very well organized; just as my late father Yunho Lee was. His bible and a few books were neatly stacked on the bookshelf, and in the cylinder-shape pencil case there were a couple of ball-point pens.

Bill Lee opened a drawer. Inside, there were notebooks. He did not need to open them to find out what was inside for he knew what was inside. Daily appointments, revenue of the company, and monthly, annual plan would be written in neat and small handwriting. As he looked through the pages to see his father's handwriting, he then put down the notebook on the desk and took off his glasses.

He opened the cabinet beside the desk. Among several accounting books, He noticed that there were large-sized note-books right next to the envelopes. He picked up one among the more than twenty neatly stacked notebooks. They were ordinary notebooks with no marks or titles on the cover. He opened it.

"It's been two months after the surgery. Yesterday, I went out for a walk along the riverside bank I used to enjoy walking before I got sick despite the slippery road due to the sleet. I felt fine. However, when I went on hiking for the second time after I came back from the US, which was last week, I was short of breath"

Bill Lee remembered his father had kept a diary, but it was the first time he actually saw them. He took out all notebooks and spread them on the floor. Some of them were faded into



무릅쓰고, 병 나기 전에 즐겨 걷던 강변을 걸어보았다.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지난주에는 미국에 다녀와서 두 번째로 산에 오르는데 숨이 참을 느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고 계셨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보기는 처음이었다. 병훈은 대학노트들을 모두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다. 오래 전 것인지 누렇 게 변색이 된 것도 있었다. 병훈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아버지의 일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본을 만드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로 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두 가지는 병행되어야 한다. 나는 그래서 선순환이라는 방법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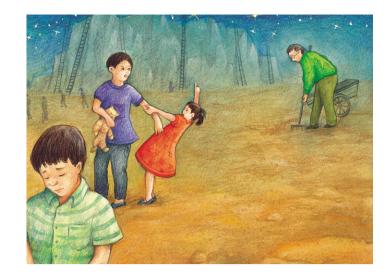
내 힘으로 내 생전에 실현가능한 일의 범위는 정해졌다.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기술 개발에 유효한 투자를 한다. 개발된 기술로 신상품을 계속 출시한다. 기업은 체구보다 건강한 생명력과수명을 중시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yellow. He turned on the light and began to read his father's diary.

"I realized, somewhat belatedly, that creating capital and what I wanted to do are two inseparable things. The two must run parallel. Thus, my conclusion was to start a virtuous cycle. What I can achieve during my lifetime is set. Run a company to generate sustainable profits, invest in technology, and use technology to bring new products in the market. The financial health and lifespan of the company should be put before its size, and it should be able to serve the public good."

"My Lord, I know that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ings after living 70 years in the world. It is sad that I have to leave behind my wife, children and grand children, but I am grateful for you to grant me enough time to sort things out before I leave. One

#### WAY 청강열전 Biography of Yunho Lee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온 지 70년 가까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자 손자와 아름다운 산하를 뒤에 두고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은혜로운 당신의 손길을 보고 감탄하고 감사하옵니다.

주님 또 한 가지 감사하올 일은,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만성병을 갖게 하시어 전후좌우 살펴보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여유의 은혜까지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와 큰일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도 유감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룩하지 못할 분에 넘치는 안녕한 생활 을 누리고, 일들을 성취해 놓고 가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 님의 자식이 떠난 후에도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과 자연과 일들 위에 당신 의 은혜로운 손길이 머물러 지켜주시고 북돋아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한평생이 담긴 기록들. 병훈은 더 이상 일기를 읽을 수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선 병훈은 아버지 연호가 그랬던 것처럼 한강 둔치의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검푸른 한강은 유유히 흐르는데, 건너편 강변 아파 트의 불빛이 물결에 반짝거렸다. '마음은 만고에 변함 없는 푸른 산과 같 고, 행함은 천 리를 가는 도도한 강과 같도다.' 아버지가 마음에 새기시던 글귀가 떠올랐다.

병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아버지의 꿈처럼

more thing I have to be grateful is that you gave me a chronic disease so that I could brace myself and arrange things before I leave rather than leave this world unprepared.

"God, I could not accomplish much in this world, but I have no regrets. I am proud that I achieved undeserving prosperity which was by no means possible without your hand. I believe that you will protect my work and people that I care for and places I love even after I leave. Amen."

It was the record of his father's whole life. Bill Lee put down the diary and surreptitiously went out of the house. As his father did, he walked alongside the river bank. The dark blue Han River was shining, reflecting lights of apartments across the river. He remembered his father's favorite phrase; 'The mind is like a blue mountain which does not change for thousands of years, and putting it into action is like a great river which spreads across thousands of miles.'

Bill Lee looked up on the sky. Stars were shining brightly like his father's dream. One of the stars came down to earth and sowed the seeds of hope. "Bill Lee!" His father's words still lingered vividly in his ears.

"There is no such thing as better and greater work. The real



매달려 있었다. 그 별 하나가 이 땅에 내려와 소망의 씨앗으로 움트고 있었다. "병훈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더 좋은 거, 더 멋진 일이란기, 따로 있는 기 아이다. 진짜 일은 니 손이 닿는 데 있는기라. 니 주변에서하고 싶은 거, 이만하면 뜻 있는 사업이다 싶은 거, 그런 거 찾아 갖꼬, 그거하나에만 매달리 봐라. 니 평생에 다 못할 일이다 싶으마, 기반만 잘 닦아가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도 큰일 하는기다." 예, 아버지... 병훈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언젠가 나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남기신 일에 이 일 저 일 더했다고 친구처럼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땅 위에 별을 심은 당신에게, 저 또한 꿈을 심었노라고...

밤하늘에 별이 더욱 총총했다.

글 | **문선유** |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 - 청강 이연호를 기리며』에서 발췌

work is within your reach. You should find something worthwhile, something your passion takes you and cling to it. If it is not achievable within your lifetime, then you can make the foundation and let the next generation pick up where you left."

"Yes, Father..."

Bill Lee was suddenly relieved. Someday, he will leave this world too and will meet with his father. He will be able to boast about what he added on his father's work. I also took care of what you sowed on the ground, and planted my dream, too. The stars were twinkling silently, watching down on him.

By **Sunyu Moon** Excerpted from *He who grows stars on earth; In Memory of Chairman Lee, Yunho* 

## 하이난 알로콥. GMP 인증 획득

2009년 5월25일, 하이난 알로콥은 하이난 성의 건강복지부에 서 제정한 GMP 심사규정을 통과하여 GMP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였다.

GMP 심사의 엄격한 규정과 까다로운 요건은 우리가 당초 예상 했던 것 이상이어서 처음에 우리는 최종 심사의 통과 여부를 우려 하였다.

GMP 인증 획득은 이제 가공 생산에 들어간 지 겨우 1년밖에 되 지 않은 하이난 알로콥 공장의 또 하나의 위대한 성취로서 하이난 알로콥 역사의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하겠다. 이러한 성공은 안전 한 제품, 안정적이고 균질한 품질의 제품 생산 등, 공장 경영의 표 준화와 정상화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이는 마케팅 부 문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도움 을 주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하이난 공장은 높은 품질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다. 공 장 설계에서 건축, QA/QC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서 GMP 표준 요건에 일치하도록 엄격하게 실행되었다.

2009년 1월, 하이난 알로콥은 GMP 인증 획득을 위해 품질관 리, 생산, 엔지니어링, 물류, 인사교육, 구매, 마케팅 등 여러 분야 의 사람들로 GMP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작업을 진행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생산과 물류 부문을 조정하고 개선하였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경영 절차표준, 기계작동절차표준, 검사기록 등 630종이나 되는 모든 문서에 따라 수차에 걸쳐 공장의 모든 기자재를 시험하고 운전하 고 평가했다.

GMP 인증위원회 핵심 업무는 공장의 점검사항들을 정규적으



GMP 획득 증서 GMP certificate GMP 认证证书

The Acquisition of GMP Certification for Hainan Aloecorp Aloe Powder (raw material) Plant

海南南洋芦荟牛物工程(美国) 有限公司工厂芦荟干粉(原料) 车间通讨GMP认证

On May 25, 2009 Hainan Aloecorp Co., Ltd. has passed the GMP spot check which was organized by the Public Health Department of Hainan Province and successfully acquired the GMP Certification.

The strict formulation and harsh requirements of the GMP

spot check had far surpassed our expectations indeed and at first made us concern about whether we could pass the final permission.

It is another great achievement of Hainan Aloecorp ever since it had been put into production merely one year ago, thus can be seen as a milestone of its history. It symbolizes the plant management's achievement in standardization and normalization ---- safer products, more stabilized and homogeneous quality. Meanwhile, it can be of great help to the marketing division create a larger market and gain more clients.

From the beginning, the plant was programmed to meet high standards: from the plant design, factory construction, setting up to QA/QC, every aspect was strictly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and requirements of GMP.

The GMP Certification Group of the plant was nearly set up when January of 2009 arrived. The group members were from diverse fields: quality, production, engineering, warehousing, personnel train-



GMP 심사현장 Judges select GMP winners GMP 审查现场

2009年5月25日. 海南南洋芦荟生物工程(美 国)有限公司顺利通过了海南省卫生厅组织的 GMP现场审查. 取得了GMP证书。

由于GMP严格的规定和苛刻的审查条件远远 超过了我们预期的想象, 起初我们对是否能够 顺利通过最终的审查抱有忧虑。

这是公司在投产仅一年后取得的具有里程碑 意义的又一重大成果, 它标志着工厂的管理已 达到标准化及规范化,产品将更加安全,质量 将更稳定,均一。同时对营业部开发更多的市 场及赢得更多的客户会有很大的帮助。

公司在开始规划工厂时就已立足于高起点: 从工厂的设计,厂房施工,设备的选择及安 装, 调试, 到QA/QC等各方面, 都按照GMP的 规范及要求来进行, 前期的准备工作比较充分。

工厂在2009年1月正式成立了GMP认证小 组:小组成员来自工厂的质量部, 生产部, 工 程部、仓库以及公司的人事培训部、采购部及 营业部。 认证小组从硬件及软件(管理)两大部 分着手:硬件方面,对生产车间及仓库按GMP 要求进行了整改、完善。软件方面、各部门组 织编写了各类文件多达630个,包括标准管理程 序(SMP). 标准操作程序(SOP)以及记录 (Record)。 同时对工厂全体员工进行了多次理 论及操作培训及考试。

JULY 2009 31 30 ECONET WAY

로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가령, 매주 수요일 오후 에 위원회는 인사, 위생, 원료, 창고 보관, 운송, 디자인, 설치, 생 산 공정, 품질관리 등 총 7가지 분야, 140가지의 GMP 점검항목을 반복하여 점검하였다. 그래서 표준 이하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 는 정해진 기일 안에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150일 동안 밤낮 가릴 것 없이 모든 직원들, 특히 GMP 인증위 원회의 위원들은 인증에 대비하여 대단히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 들의 노력과 밤샘 작업 덕분에 마침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GMP 인증을 획득하기에는 네이처텍의 도움이 지 대하였다. 공장 설계 초안에서부터 시험가동, 내부 감사에 이르기 까지 에코넷의 CTO인 조태형 사장과 네이처텍의 안계환 상무는 하이난 알로콥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별히 3월23 일 두 사람은 GMP 교육과 훈련을 위해 하이난을 방문하여 작업 지도에 총력을 다했다. 이렇듯 GMP 인증 획득은 에코넷의 수직 계열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에코넷의 시너 지 효과이다. 우리 하이난 알로콥의 전 직원은 조태형 사장과 안 계환 상무의 배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GMP 인중은 우리 전체 에코네시안의 노력과 지원, 협력으로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진정 중요 한 것은 GMP 표준에 따른 까다로운 작업을 앞으로 실제 시행하 였을 때에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GMP 인증을 획득한 궁극적인 목표이다.

글 | 이안 쭈 공장장 | 알로콥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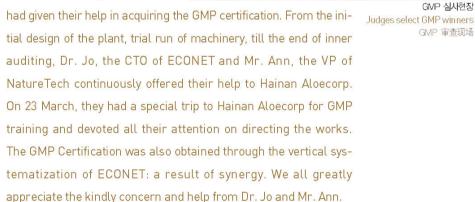
GMP 심사현장 Judges select GMP winners GMP 审查现场

ing, purchasing and marketing department respectively. They set to work in two large divisions; as for the hardware, they rectified and improved production department and warehousing. For software, they complied all kinds of documents as many as 630, including Standard Management Procedure(SM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OP)and records. At the meantime, they carried out theories, trying training and examinations for many times to all plant stuff.

The key emphasis in work of GMP Certification Group was the execution of checking and indicating the plant's checkpoints normatively: having a group meeting every Wednesday afternoon, checking out 7 aspects such as personnel, sanitation, raw material, storage, transportation, design, installations, process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quality. The 140 checkpoints of GMP were checked repeatedly and had to be rectified and improved in a limited time once considered as substandard.

For 150 days and nights, all staff, especially the members of GMP Certification Group, were extremely busy with the preparations. Due to their efforts of countless all nighters and hard work, we were finally able to make it out.

Simultaneously, NatureTech



The GMP Certification was obtained under the efforts and the help and cooperation of our whole ECONETians. However, it is merely the first step.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xecute the tricky work properly when put into actual practice which will be our final aim to obtain the GMP Certification.

By Ian Zhu Plant manager | Aloecorp China



GMP 审查现场

认证小组的工作重点放在GMP规范的执行, 检查及指导方面:每星期三下午召开GMP认证 小组会, 检查如下7个方面的完成情况:人员, 卫生, 原料, 贮存及运输, 设计及设施, 生产 过程, 品质管理。对140个GMP检查点反复检 查, 发现不合格, 限定时间整改完成。

就这样在,全体员工,特别是参加认证准备 的各位小组成员,从2009年1月到5月中旬,一 直忙碌了一百五十多个日夜, 其中有数不清的 不眠之夜, 有他们的努力, 才使得我们的准备 工作非常扎实,有效。

同时, Naturetech集团对我们也进行了GMP 认证指导。 赵社长从设计开始就要求一切按 GMP规范执行。 赵社长和安常务在2009年3月 23号还专程从韩国赶来,对工厂进行了为期一 周的GMP认证培训,从各方面对我们的工作进 行了悉心的指导。GMP认证的顺利获得也是 ECONET集团的垂直系统化和协同作用的成果。 对赵社长及安常务的帮助表示感谢!

通过全体南洋芦荟人的齐心协力, 我们顺利 地拿到了GMP认证。但这只是万里长征的第一 步:接下来要做的更为重要,就是要在实际工 作中严格执行GMP的各项规范。这也是我们进 行GMP认证的真正目的。

朱僧山 | 厂长 | 海南南洋芦荟生物工程(美国)有限公司



엄마와의추억 Memories with my mother

## 사랑하는 엄마와 아끼는 카메라와 함께

With my loving mother and darling camera



중국의 빨래 너는 방법은 인상적이다 Hanging out laundry the Chinese way is impressive

여고생 시절, 나의 꿈은 사진작가였다. 한때는 사진을 전공하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대학생활, 직장생활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사진의 꿈은 저만치 멀어졌다. 그러다가 한 4년 전쯤 취미로나마 처음 카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이후로 어디를 가든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런 딸의 영향 때문일까? 우리엄마도 동년배의 아주머니들보다 유난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신다.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 우리는 다정한 친구처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2년 전에는 일본인 친구의 초청으로 후쿠오카 와 큐슈 일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중국 상하이에 도 전해보기로 작정하였다. TV로만 보았던 중국의 급성장한 모습과 대륙의 기운을 직접 느껴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엄마와 함께 떠난 3박4일간의 자유여행!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 던 그 여정을 함께 떠나 보시죠. When I was in high school, I dreamt of becoming a photographer. I even once toyed with the idea of majoring in photography at college. However, I was all too busy going through college and work, and forgot my dream. About four years ago, I picked up a camera as a hobby, and never lost hold of it since then wherever I went. I don't know if it was influence from me, but my mother also loves taking photos.

Our mutual love for taking pictures made us travel together a lot like close friends. Two years ago, a Japanese friend invited us to sightsee Fukuoka and Kyushu. This year, we decided to go to Shanghai. We wanted to feel that energy of the fast growing economy and the wind of the vast continent we could only imagine through TV.

Three nights and four days of Shanghai! I hope you can also feel the excitement yet the exhaustion of the trip.

On the first day, we took a plane from Gimhae International Airport early



저녁이면 불을 밝히는 상하이의 거리 Streets light up in the evening of Shanghai

첫째 날, 우리는 맘껏 중국을 느끼고 카메라에 담아보려 이른 아침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상하이가 부산에서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임에 한 번 놀랐고, 푸동 국제공항에 내려서는 그 규모에 두 번 놀랐다. 공항과 상하이 시내를 연결하는 자기부상열차는 또 어찌나 빠르던지. 엄마도 나도 400km/h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바깥풍경에 넋이 나간 사람마냥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 다. 사람들이 좀 쳐다보긴 했지만 우린 관광객이니까, 이해해 주려니 생각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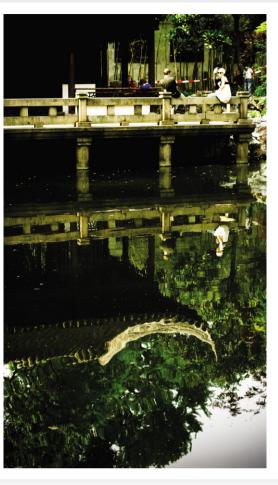
상하이라는 도시는 우리에게는 정말 볼거리, 놀랄 거리로 가득한 별 천지였다.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 안, 온갖 먹거리가 즐비한 거리, 창문 마다 삐죽이 나와 있는 작대기에 걸려있는 빨래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까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한곳에 모아놓은 것 같은 풍 경이었다. 어디에 어떻게 카메라를 들이대야 될지 감을 잡기 힘든 곳이 었다. 그래도 우리는 3박4일 동안 있는 힘껏 셔터를 눌러대며 상하이 in the morning to feel and take pictures of China as much as possible. We were surprised that Shanghai was actually a two-hour distance by plane from Busan, and were surprised again by the vastness of Pudong International Airport.

How fast was the magnetic levitation train which links the airport and Shanghai! Mom and I pressed our shutters like crazy to capture the landscape outside of the train running at 400km/h. People looked at us, but we assumed they understood us for acting like tourists.

Shanghai was full of surprises and exciting views. The train packed with people, vendors selling all kinds of foods on the street, laundries hanging out of windows on a stick, and all kinds of people walking on the street... It was like watching the whole world crammed in a miniature scale. It was difficult even to decide where to point my camera. However, we looked around Shanghai pressing shutters as much we



와이탄의 야경 Night scene of Waitan



예원의 한가로운 오후 A relaxed afternoon at Yewon

이곳저곳을 둘러보았고, 체력이 떨어진 엄마는 결국 약까지 챙겨 드셔 야 했다.

가는 곳마다 사람으로 넘쳐나고 모든 것들이 다 빼곡해서 여백 있는 사진을 찍기는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건 엄마와 단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은 모두 경쾌한 셔터 소리와 함께 가슴 속에 저장되었다는 것이다.

상하이의 소중한 추억들은 다른 그 누구와 함께가 아닌 '사랑하는 엄마와 가장 아끼는 카메라와 함께' 여서 더 행복했다.

다음 세 번째 여행은 중국 상하이와는 다른 조용하고, 한산하며, 여유와 여백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물론 이번에도 엄마와 카메라를 안고 가겠다.

누구? 에코네시안 여러분~~ 좋은 곳, 소개시켜 주세요~

글 | **방지영** 대리 | 품질보증팀 | 네이처텍

could during our stay. My mom was so exhausted that she had to take medicine.

The city was full of people everywhere, and everything was hectic so we couldn't take many photos with enough space, but what was most important was that Mom and I made beautiful memories together, and all moments were imprinted in our hearts with a clicking sound.

The memories were dearer to my heart because I was with my loving mom and my dear camera.

By the way, I want our next travel to be in a quiet, tranquil place unlike Shanghai. There is no need to say I will be accompanied by my loving mother and dear camera.

ECONETians! Please recommend me a great destination!

By **JiYoung Bang** Assistance Section Manager | QA Team | Naturetech



#### 대전영업국에서 에이지엑스로 만든 지구

지구상에 있는 유해산소 다 죽었어! 이런 대리점 사장님들의 열정이 바로 제 보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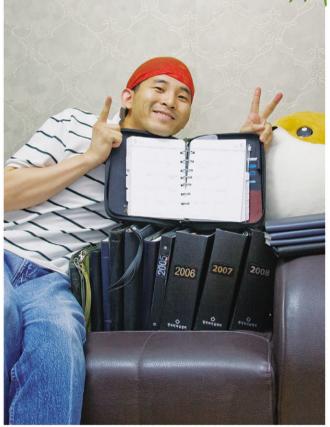
#### The earth made of AGX by Daejeon division

Death to oxygen-free radical!
The passion of Heads of Distributors is the biggest asset to me.

#### 김효재 대리 | 중부영업팀 | 유니베라 한국

Hyojai Kim Assistant Manager | Sales Team | Univera Korea





#### 나의 보물1호, 다이어리

1998년, 스물한 살, 군 입대 후부터 나 자신을 바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써온 다이어리 들입니다. 손가락 1과 2는 12년치 다이어리란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저의 보물1호입니다. 세월이 흘러 가족들과 헤어질 때 꼭 가져가고 싶은 소중한 기록들입니다. 목표는 80권인데, 그러자면 담배부터 끊어야겠습니다. (100)살까지 무병장수 $^{\sim}$ )

#### My dearest diary

I have kept on writing a diary since twenty-one years old in 1998 when I joined the military service to change and develop myself. The fingers in the picture mean that they are diaries that had been written in for 12 years. They are my treasures which link my past, present and future. I wish to bring these with me when the time comes for me to leave my family behind. My goal is to keep on writing 80 volumes of diaries, but I guess I have to quit smoking first to achieve that goal, that is to live a long and healthy 100 years old.

#### 최병석 대리 | SCM팀 | 네이처텍

Binson Choe Assistant Section Manager | SCM Team | Naturetech



#### 나의 보물 1호, 지폐와 우표

저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두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1930년대 조선은행 발행 지폐들과 이후 한국은행 발행 지폐들이고, 둘째는 1965년부터 발행된 한국의 우표와 명판, 전지, 세계 각국의 우표들입니다. 에코넷이 설립된 1976년도에는 새마을 운동, 육군사관학교 개교 30주년, 미국독립 200주년, 한국 걸스카우트연맹 창설 30주년 등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살아있는 지폐와 우표들이 바로 저의 보물1호입니다.

#### Old banknotes and post stamps: My no.1 treasure

I have two things passed on to me from my great-grandfather. The first is banknotes dating back to 1930, printed by Joseon bank, and earlier noted printed by the bank of Korea. The second one is post stamps, plate blocks, and large sheets of Korea and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since 1965. I can see that in 1976 when ECONET was established, there were events like the New Community Movement,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s Military Academy,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Fourth of July and the 30th anniversary of Girl Scouts of Korea. These banknotes and stamps which show history are my biggest treasures.

강승원 팀장 | 총무/인사 | 유니젠

Seungwon Kang Manager | HR&General Affairs | Unigen



#### 수박농사

저희들의 수박 농사는 저희가 먹다 버린 수박 씨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지난 봄, 싹이 나는 것을 본 후 동료인 로사린다에게 수박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고 4월부터 물을 주며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알로콥의 모든 직원들이 저 수박을 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보기 좋은 만큼 맛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 The Watermelon Patch

The plant was from a seed we threw out while eating watermelon. During the spring I saw it come up and I told my co-worker Rosalinda that is a watermelon. Since April we have been watering it and watching it grow. Now everyone at Aloecorp is waiting to eat that watermelon. I hope it's as good as it looks.

#### 루루와 로사린다 | 알로콥 미국

Lulu Munoz and Rosalinda Rosales | Aloecorp USA

다음 호 사진콘테스트의 주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2009년 7월 31일(금)까지 각사 기자들에게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되신분들꼐는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The theme of next issue's photo contest is "My favorite food"

Please send us a picture featuring you and your favorite food.

The photo should be delivered to the editors in each office by no later than July 31", 2009. For those whose photo is selected, we will send a small gift.

### 에코넷 한국 홀딩스 ECONET Korea Holdings

청강문화산업대학 창작마을 개관

Opening of Creative Village at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에코넷(ECONET)가족의 일원인 청강문화산업대학(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은 5월8일 개교기념식과 함께 창업보육센터인 '창작마을'의 개관식을 가졌다. 창업보육센터인 '창작마을'은 경기도와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2007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개관하게 되었다. 청강문화산업대학 창업보육센터 '창작마을'에는 문화산업 관련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한 '창작마을'은 최대 160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용 제작스튜디오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 기자재 및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a part of ECONET family, marked an anniversary at May 8th as well as celebrated the opening of *Creative Village*, a incubation center for new entrepreneurs. Creative Village, supported by Gyeonggi province and Icheon city's municipal governments, had an opening ceremony coinciding with the foundation anniversary of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after a 2-year-long construction which started in May 2007. 14 businesses related to cultural industries have already moved into the Creative Village. Also, the village is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equipment which are required to create contents for animation, game, and cartoons as well as a studio where 160 people at maximum can work at the same time.



에코넷 한국의 신입사자 교육이 2009년 5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동안 2008년 신입사자교육 이후 입사한 총 9명의 신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에코넷에 대해 이해를 돕는 전반적인 강의와 네이처텍 견학 및 현장 실습, 물류센터 견학, 유니젠 견학, 청강문화산업대학 견학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첫날 특강에서, 이병훈 총괄사 장은 천연물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이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인 에코넷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에코넷은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입사자들이 에코넷의 비전과 열정을 공유하고 에코넷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The 2009 ECONET new employees training took place from May 18th to 20th for nine new members who joined after the 2008 training. The trainees attended general lectures about ECONET, and at Naturetech they took a quick tour around the factory and did some field practice. After that, they were brought to the logistics center, Unigen and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On the first day of training, ECONET Chairman & CEO Bill Lee explained about the philosophy of ECONET;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and happiness together and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using natural products. He especially emphasized that it is everyone's duty to make ECONET a place where all can share their dreams together. With that, he encouraged the trainees to have a sense of pride and responsibility as ECONETians and to share the vision and passion of ECONET.

####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이병훈 총괄사장, EBS CEO특강

Chairman & CEO Bill Lee, gave a special CEO lecture in a Korean TV program.

지난 5월20일 EBS에서 에코넷 이병훈 총괄사장의 CEO 특강이 방영되었다. EBS의 CEO 특강은 성공한 기업의 생 존전략과 CEO의 경영관을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병훈 총괄 사장은 아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의 차이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사장은 해외농장 개척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과정, 그 결과로 얻은 알로에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명성과 세계 천연물 1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학생들로부터 웃음을 끌어내면서 재미있고도 진지하게 설명했다. 젊은이들에게 에코넷의 꿈을 나눠주고 희망을 불러일으킨 뜻 깊은 자리였다.

방송을 본 유니베라 대리점 사장들도 한결같이 감동적인 강의였다고 평가하면서 함께 사업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뜻을 이 사장에게 전했다.

On May 20th, EBS, Korea's public broadcasting station specializing in education, aired a special lecture by ECONET Chairman & CEO Bill Lee. His lecture sent clear messages to young college students on his business philosophy and corporate strategy. Ajou University students listened to his lecture under the theme of "Unique point of view determines future competitiveness." He added humor to his story of overcoming challenges in establishing overseas farms, and the fame of Aloe powerhouse he earned for Korea, and business strategies on how to become No. 1 in the world natural product market. It was a meaningful moment to share ECONET's vision and infuse students with hope. Heads of distributors who watched the TV lecture said that the lecture was very impressive, and they were lucky to do business with Mr. Lee.

#### 하이난 알로에 농장과 알로엑스골드큐 런칭 보도

Major newspapers reported on the Hainan Aloe Farm and the launch of Aloe -X Gold Q.

전세계 알로에 업계 선두에 서서 알로에의 기준을 만든 유니베라의 소식이 5월부터 6월까지 조선일보 등 국내 주요일간지에 소개되었다. 신문 보도를 통해 중국 하이난 섬 429만㎡(130만평)에 심겨진 에코넷의 알로에 농장과 알로에 과학화 노력이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에코넷은 알로에의 어떤 성분이 사람 몸의 어느 기능에 어떻게 좋은지를 밝혀내고, 그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기여하였다. 이러한 에코넷의 알로에 과학화능력이 전세계 알로에 원료 시장를 40% 넘게 점유하고 있는 에코넷의 강력한 핵심역량이다.

자연이 살아 있는 섬, 하이난에서 자란 알로에와 그 알로에로 GMP 인증을 획득한 공장에서 만든 알로엑스골드큐의 런칭 소식도 함께 소개되어, 많은 소비자로부터 제품 기능 문의는 물론 구매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Major Korean daily newspapers such as the Cho-seon Ilbo reported news on Univera, a company which set the standard of the world's Aloe industry in May and June. The news reports have demonstrated ECONET's 4.29 million m²-wide farm in Hainan, and its effort to lead scientific application of Aloe. For decades, ECONET discovered benefits of Aloe to human health, and set the standard for Aloe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Its R&D capability accumulated for more than decades is what makes ECONET account for 40% of Aloe raw material market. Also, news on Aloe products grown in Hainan's clean environment, and ECONET's new product made by Aloe from Hainan - Aloe-X Gold Q - were introduced by the media. Univera's Customer Support Team reported that many customers are making inquiries about the product's information.

#### KBS1TV "체험 삶의 현장", 하이난 알로에 농장 체험편 방영

Korea's public broadcasting station featured Aloe farm at Hain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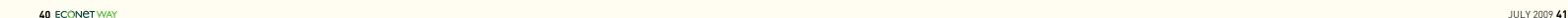
지난 5월10일 KBS 1TV "체험 삶의 현장" 프로그램에 하이난 알로에 농장 체험편이 방송되었다. 탤런트 방은희 씨가 알로에 재배 최적지인 하이난 농장에서 알로에를 직접 심고 수확하는 체험을 했다. 방은희 씨는 알로에겔을 피부에 발라보기도 하고 알로에 기능성을 최대로 높인 제4세대 알로에, 알로엑스콜드큐를 생산하는 공장시설까지 둘러보면서 알로에 농장 규모와 알로에 과학화에 감탄을 연발했다.

On May 10<sup>th</sup>, the TV show named "The famous Roll Up Their Sleeves" featured ECONET's Aloe farm in Hainan, China. Actress Eun Hui Bang experienced planting and harvesting Aloe plants in Hainan, the world's best place to grow Aloe. Bang tried Aloe gel on her skin, and looked around the facilities pro-









**ECONET News** 

ducing Aloe-X Gold Q. By the time she was to leave, Bang was impressed by the size of the plant and technology of Univera.

#### 이음, 매주 금요일 'UNIVERA DAY' 운영

30% discount at Italian restaurant on Every Friday!

유니베라가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음은 유니베라 임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지난 5월15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UNIVERA DAY'로 운영한다. 이음이 유니베라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매주 금요일, 유니베라 데이에 피자와 파스타를 30%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유니베라 가족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 맛있는 이탈리안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Italian Restaurant Eum, owned by Univera, announced every Friday as "Univera Day" for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As a gesture of appreciation for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the restaurant will offer a 30% discount on pizzas and pastas every Friday. Now all of Univera's family will be able to enjoy delicious Italian meals without paying a lot of money.



This year's Wednesday concert season begins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리는 수요음악회가 5월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5월20일에는 작년에도 초대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4명의 남성 보컬 스윗소로우가 다시 초대되어 5월의 밤을 낭만으로 가득 채워다

수요음악회는 에코넷센터가 위치한 성동구 인근 주민들과 에코넷 가족이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06년부터 운영되었다.

The season of Wednesday concert, which had been held the third Wednesday of every month from spring to autumn, came back this year. On May 20th, male vocal group Sweet Sorrow filled the spring night with their romantic voice. The group was invited in last year as well.

The Wednesday concert was planned to share cultural experience with the ECONET family and residents of Sungdong-gu where ECONET center is located. The event launched in 2006.

#### 네이처텍 Naturetech

#### 네이처텍(Naturetech) 한글명 표기

Correcting Visual Identity - Korean spelling of Naturetech.

2007년 5월 네이처텍은 한글 사명의 표기를 네이처텍으로 수정, 통일하였다. 2007년 브랜드 네임 런칭 이래 한글 사명이 네이쳐텍으로 표기되었으나 한글맞춤법에 따라 네이처텍과 함께 쓰이는 혼동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네이처텍은 Naturetech Visual Identity Design의 표기사항을 수정하고 네이처텍으로 한글 표기명을 수정, 통일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네이처텍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기재되는 사명도 네이처텍으로 변경된다.

Starting from May 2007, Naturetech made changes in its Korean spelling. Ever since the brand name was launched in 2007, the company had been using the name "네이쳐텍" for "Naturetech" in Korean, but it had caused confusion and had often been misused as "네이쳐텍." Even though it sounds the same despite the spelling difference, the latter "네이처텍" better complies with the Korean grammar. Thus, Naturetech updated the Naturetech Visual Identity Design and corrected its Korean name to "네이처 텍." Accordingly, the company's name printed on every Naturetech product that is to be produced will also be printed "네이처텍" from now on.

#### 에코넷 R&D 써밋 개최 ECONET R&D Summit

제16회 에코넷 R&D 써밋이 지난 5월25~27일 사흘간 네이처텍의 주관으로 한국 청주 '라마다 청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에코넷 한국 홀딩스 조태형 CTO를 비롯하여, 유니베라 미국의 랄프 비츠(Ralph Bietz) CGOO(Chief of Global Operations Officer), 유니베라 한국의 차지민 상무, 유니젠의 치 지아 CSO, 알로콥의 켄 존스 CSO, 네이처텍의 안계환 상무 등 에코넷의 R&D 리더들이 모두 참석한 이번 써밋에서는 첫째 날 차지민 상무의 힐탑가든 프로젝트, 둘째 날 켄 존스 CSO의 Aloecorp Zero Waste Initiative in Manufacturing 등 각 사별로 R&D 이슈들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주제발표 후에 연속하여 심도 깊은 토의를 전개하여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의문점과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셋째 날에는 '단합'을 주제로 에코넷 R&D 리더들과 네이처텍 연구원들이 함께 속리산을 등반하였다. 참가자들은 속리산의 명소인 법주사와 정이품송 등의 절경을 감상하고 정상까지함께 오르면서 에코네시안으로 하나됨을 확인하였다.

The 16<sup>th</sup> ECONET R&D Summit hosted by Naturetech took place in the Ramada Cheongjoo Hotel from May 25<sup>th</sup> to 27<sup>th</sup>. ECONET's R&D leaders including Taehyeong Jo(CTO of ECONET Korea Holdings), and Ralph Bietz(CGOO of Univera US), Jimin Cha(CSO of Unigen), Ken Jones (CSO of Aloecorp) and Gyewhan Ahn(Executive director of Naturetech) all participated in the summit. Each company made a presentation on R&D issues: Jimin Cha explained the Hilltop Garden project on the first day, and CSO Ken Jones introduced Aloecorp Zero Waste Initiative in Manufacturing. Despite their busy schedules, participants engaged in in-depth discussions, sharing plans and addressing issues. On the third day, R&D leaders and Naturetech researchers went hiking to Sokri Mountain under the theme of "Unity." As they went up the mountain together, participants appreciated beautiful sceneries such as Temple Beopjoo and the graceful Jeongipumsong Pine Tree and experienced the unity of becoming an ECONETian group.

#### 네이처텍 월별 행사 - 5월, 중식지원 행사 Monthly event at Naturetech - Lunch event in M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네이처텍은 달마다 특정한 테마를 정하여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중식 서빙 지원 행사를 실시하였다. 네이처텍의 8개 팀 모두가 참여한 중식지원행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일이 되면 해당 팀에서 뽑힌 세 사람이 9시30분부터 직원식당의 요리사가 되어 중식 메인 요리를 약 3가지 정도 준비하고 중식 시간에 배식하였다. 나머지 팀원들은 중식시간 내내 모든 임직원들을 서빙하였다. 경영지원팀의 꽃빵과 부추잡채, 짬뽕국의 중화요리를 시작으로 네이처텍의 외식업체인 ECMD의 초밥, 우동, 락교 등의 일식요리를 끝으로 행사는 종료되었다. 그 중 연합팀(SCM팀, 해외영업팀, 영업팀)이 만든 막국수와 춘천닭갈비가 가장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삶은 국수 위에 오이, 무, 계란 등을 올려 예쁘게 담고, 맛난 육수를 부어 내놓은 막국수는 여느 주방장의 솜씨 못지 않았다. 네이처텍 임직원들은 이 행사를 주기적으로 갖자고 제안하였다.

As a part of its effort to create a happy workplace, Naturetech holds a monthly event under a special theme each month. In May, it was a lunch event to mark the occasion of the Month Of Family. Eight teams at Naturetech participated in the event, serving lunch every Wednesday and Friday for three weeks. When it was their time to cook, three people who represented each team prepared three main dishes for lunch at the cafeteria, and afterwards the rest of the team members would serve the meal to all employees at lunchtime. The Management Support team presented Chinese roll, chop suey with Korean leek, and Chinese-style spicy hotchpotch soup the first week, and the last team ECMD, the cafeteria staff, offered Japanese quisine of Sushi, Udong and Rakkyo. Among the eight teams, the buckwheat noodles and Chuncheon-style spicy grilled chicken which were served by the SCM team, Overseas Sales Team and the Technology Sales Team who worked altogether got the most favorable





comments. The buckwheat noodles, decorated with sliced cucumber, radish and boiled egg and served with a delicious broth, tasted like it was made by a professional cook. After the event, Naturetech employees suggested to have the lunch event regularly.

2008년도 자율점검 우수업체 최우수상 수상

지난 5월21일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2008년도 화장품 자율점검 우수업체 시상식에서 네이처텍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수상 제도는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충청 관내의 LG, 태평양, 한국화장품, 한불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등 60여 개 화장품 제조업과 수입업과 관련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제조, 품질 관리 현황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활동을 유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 제품의품질을 항상시키고 동시에 제품의 품질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는 제도이다. 네이처텍은 2002년 최우수상, 2008년 장려상을 수상한 후 올해 다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On May 21st,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 Daejeon awarded Naturetech as the best company in self-inspection in cosmetics products. The award was created to encourage self-inspection in prod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for 60 or so companies manufacturing or importing cosmetics within South Chungchong province such as LG, Amore Pacific, Hankook Cosmetics and Koreana Cosmetics. The award purports to improve product quality and prevent any quality deterioration from rising by inducing the companies to review and inspect quality issues on their own initiative, eventually leading to customer satisfaction. Naturetech was appointed as the best company in 2002, awarded an encouragement prize in 2008, and then again received an award as the best company in self-inspection in 2009.



이승기 교수, 유니젠 자문위원 위촉

Unigen welcomes new advisor Prof. Seunggi Lee

유니젠은 3월1일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을 역임한 이승기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대 약학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 퇴임한 이승기 교수는 약학과장, 부학장 및 학장, 한국분자생물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14개 대학 21명의 교수, 8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에코넷 CAP 프로젝트 1기 위원장으로 도 활동한 이 교수는 현재 3기 CAP 프로젝트의 과학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유니젠은 그 동안 이 교수가 쌓아온 천연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유니젠의 R&D 전략과 방향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Unigen appointed Seungki Lee, a former dean of the Department of Pharmacy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one of our advisors. Le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harmacy at SNU, and earned his doctoral degree at Northwestern University Medical School. He wa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harmacy at SNU from 1984 to 2009. After retirement, he served as department chief, president and dean at the Department of Pharmacy at SNU, and later as vice-chair of the KSMCB(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He participated as a head of committee in the first phase of ECONET's CAP project where 21 professors and 80 researchers from 14 universities took part from 1993 to 1999. In the currently ongoing third phase of the CAP project, he is supporting the effort as an advisor. Unigen hopes his vas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natural substances will contribute to steering the direction of their R&D strategy.



Naturetech awarded as best company in self-inspection



#### 배드민턴 대회 개최

Unigen held badminton competition

유니젠은 즐거운 기업문화 만들기와 직원들의 단합 및 사기증진 등을 위해 2009년부터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유니젠은 2009년 4월24일 병천에 위치한 아우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가졌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으로 직원들의 단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배드민턴 대회는 애드 캐넌 사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였다. 남녀혼합복식으로 불꽃 튀기는 접전을 벌인 이날의 경기에서, 우승은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을 보여준 도선길, 박경민 조가 차지했다.

그 동안 진행된 문화행사로는 1월 지역문화체험과 사회봉사활동, 3월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한 회사 및 인근 청소와 단합을 위한 족구시합. 5월 사우회 체육대회가 있다.

Unigen began to support cultural events from the year 2009 in an effort to establish an enjoyable enterprise culture and to promote unity and morale of employees.

One of the events was a badminton competition which took place on April 24<sup>th</sup> at A-woo-ne gym in Byeongcheon. The competition was placed to enhance health through sports as well as promote unity among employees, and all employees including CEO Ed Cannon participated. In the mixed doubles badminton, Do Sun Gil and Park Kyung Min who played no less than professional players won the competition.

Also, Unigen held cultural events such as a regional culture expedition and community service in January, cleaning the company's office building and its vicinity to improve environment and a competition of Jocku - a combination of soccer and volleyball - in March, and a sports day in May.



유니베라 북미 지사 10주년 기념 행사 열려 Convention 2009 Marks 10 Years

6월 유니베라 컨벤션에서는 북미 지사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병훈 총괄사장은 하객들의 축하와 격려, 감사를 받았다. 어소시이트들과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경제학자인 폴 제인 필저와 직접 판매 마케팅 전문가인 팀 세일즈에게서 현 글로벌 경제 상황과 직접 판매 업계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유니베라의 밝은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어소시이트들은 유니베라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블루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필드 리더스들에게서 업무에 유용한 조언과 교육을 받았다. 첫 스킨케어 제품을 비롯한 혁신적인 신제품들이 공개되었으며, 자선단체인 Our Serve First 에 서는 5km 러닝/걷기 행사를 주최하였다. 이 행사의 모든 수익금은 불우이웃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다. 우수 어소시이트 표창식을 비롯, 신규 어소시이트들이 앞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At Univera, North America's 10-year celebration during our annual Convention in June, Chairman Bill Lee was greeted with admiration, cheers, and gratitude. Associates and guests heard world-renowned economist and author Paul Zane Pilzer and direct sales marketing expert Tim Sales, who talked about the wellness and direct selling industries in the current world economy, which helped to solidify our Associates' confidence in our collective future.

Associates also received quality training and advice from Univera's top-performing Blue Diamond and Diamond Field Leaders to apply to their own businesses. Everyone was treated to the unveiling of our newest breakthrough products, including our first venture into skin care. Our Serve First charitable organization held a 5K Walk/Run event where all proceeds went toward purchasing much-needed nutrition for those who can't afford it.

We honored our best and encouraged our up-and-coming members to achieve their full potential in the months to come.



### 알로콥 미국 Aloecorp USA

멕시코 파누코 리버 농장, 연못 건설

River Farm in Panuco in Mexico Built a Pond to Prevent Flooding.



**앞줄** 한상준 알로콥 중국 사장, 우성식 에코넷 기업본부 CAO,

윤경수 알로콥 미국 사장 <u>뒷줄</u> 구원모 유니젠 러시아 사장, 김수

경 알로콥 미국 COO, 어네스토 살가도 알로콥 멕시코 농장장, 폴 쏜톤 힐탑가든 조경사. 에드윈 프랭키 힐탑가든 농장장

front line SJ Han, CEO of Aloecorp China, Sung-Sick

Woo, CAO of ECONET Korea Holdings, Yoon KS, CEO of Aloecorp USA. <u>Back line</u> Wonmo Ku, CEO of Unigen

Russia, Joseph Kim, COO of Aloecorp USA, Ernesto

Salgado, Director of Aloecorp Mexico, Paul Thornton, landscape manager at Hilltop Garden, Edwin Franke,

Manager of Hilltop Gardens i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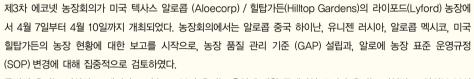
연못공사 현장 Main Pond construction site

지난 5-6월 멕시코 파누코 리버 농장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못을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2년 동안 파누코 농장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새로 식재한 알로에가 침수 당하기도 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농장운영에 지장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파누코 농장은 깊이 1.87m, 크기 약 2헥타르, 약 13,875㎡의 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규모로 연못을 건설하였다. 연못 주위로 0.8-1.8m 높이로 둔덕을 쌓아 알로에가 식재된 지역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연못으로 부터 일정 거리마다 세 줄기로 배수로를 만들었다.

During last May and June, River Farm in Panuco built a pond in order to prepare for natural disasters. For the last two years, the Panuco farm experienced considerable damages due to heavy showers that accompanied hurricanes. Newly planted Aloes were drowned, and the farm had difficulties in drainage. In order to overcome these negative circumstances, the Panuco farm built a pond which can hold about 13, 875m², which is 1.87m deep and as big as 2Hectare. Around the pond, they built an embankment with height ranging 0.8m to 1.8m to prevent flooding to the Aloe farm, and also made three-way drainage surrounding the pond to minimize damages from flooding.

#### 제3차 에코넷 농장회의 개최

The Third ECONET Farm Summit



특별히 유기농 컨설턴트, 제시카 모리슨으로부터 유기농 운영에 대한 국제적인 규정과 유기농 경영법, 토양성분 분석과 경영기법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하였다.

아울러 에코넷 농장경영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장경영과 마케팅을 하나로 묶는 농장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스토리집을 우선하여 집대성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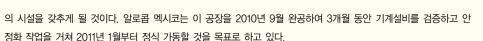
The third round of ECONET farm summit took place from April 7th to 10th in Lyford farm, Hilltop Gardens in Texas, US. At the summit, status of farms in Hainan, China, Unigen Russia, Aloecorp Mexico, Hilltop Gardens in US were reported. Also the participants engaged in discussions on establishment of GAP (quality management standard of farms) and changes in SOP(Standard of Aloe farm operation). Organic consultant Jessica Morrison gave presentations on international organic regulations and analysis and management of soil and the participants had a time to discuss on the topic.

Participants in the summit shared opinions on the future and vision of ECONET farm management, and decided to put a priority in publishing a story book on history and current status and farms which encompasses both management and marketing to realize the vision.

#### GMP 알로에 원료공장 설계도면 검토

**GMP-based Aloe Manufacturing Plant is to Be Built** 

지난 5월 7일 알로콥 멕시코는 GMP 기준에 의거하여 알로에 원료공장을 짓기 위해 설계도면을 검토하였다. 새로 신축할 원료공장은 4,235㎡(약 1,281평)의 크기로 하루 60톤의 액상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공장은 알로에 원료제조 회사로서는 미주 지역에서 최초로 건강보조식품업계의 GMP 기준에 맞는 최고



In May 7th, Aloecorp De Mexico reviewed the draft for building a manufacturing plant to produce raw materials based on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The new plant will be able to produce 60 tons of liquefied Aloe material per a day and will be as big as 4,235 m². Also, the plant will be the first Aloe manufacturing plant which will be equipped with the best facilities which live up to the GMP standard for health supplements. Aloecorp Mexico plan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by September 2010, examine and stabilize the machineries for the following three months and finally begin production starting from January 2011.

#### 알로콥 중국 Aloecorp China

알로에 산업 위원회 1차 회의 베이징에서 개최 The first AIC standing committee meeting was held

2009년 4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중국민영 과학기술 촉진회 알로에 산업 위원회 산하 알로에 산업 위원회 상무이사 및 전문가 상임위원회(AIC) 1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상임 판매 담당자인 빈센트 탕이 하이난 알로콥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 추진 계획과 알로에 관련 인증, 알로에 산업 발전 모색과 업계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알로에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판매 및 공급 현안, 효과적인 기술 통합과 다양한 관련 이슈 해결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었다. 회의의 성과에 힘입어 알로에 산업의 생산, 기술, 시장, 경제, 운영, 자문 및 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와 협력 노력이 증대되고, 국제 알로에 산업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자원 공유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IC의 회원인 하이난 알로콥 역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The 1s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professors of the Aloe Industry Committee of China Association(AIC) for Promotion of Non-Governmental Sci-Tech Enterprises was held on April 10<sup>th</sup> to 12<sup>nd</sup>, 2009 in Beijing. Vincent Tang, the senior sales manager, on behalf of Hainan Aloecorp, was honored to attend this meeting.

On the meeting, there was a heated discussion about issues such as the working plan in 2009 & the aloe-related certificates issue, how to promote aloe industry and service for members and the production, study and research, sales and supply for aloe industry and various related products, and reconciling various aspects and technology integration more effectively. Thanks to the AIC meeting,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on the aloe industry's production, technique, market, economy, management, consulting and training & building of international aloe industry information service system and the resource sharing are expected to be enhanced and promoted. From this, Hainan Aloecorp, as a member?of the AIC, will benefit a lot from this as well.

## **ECONET News**



어네스토 살가도 이사, 윤경수 사장, 알폰소 훼르난데즈 건축가, 김수겸 상무 Ernesto Salgado (Mexico Director), KS Yoon (CEO), Alfonso Fernandez (Architect), Joseph Kim (COO)



### 에코넷 한국 창립기념일 행사

## **ECONET Korea celebrated Founder's Day**



2009년 4월 3일 에코넷의 생일을 기념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에코넷 한국 창 립기념일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특별히 어려운 외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도 전정신을 고양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 양평 소재 용문산에서 에코넷 임직원 모 두가 참여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인근의 밤벌농장에서는 장기 근속 자 시상, 사우회장의 축사, 이병훈 총괄 사장의 기념사로 이어진 공식 행사와 모두 하나 되어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다. 이 행사를 통해 에코넷 가 족들은 단합되고 하나 되는 의미를 되새겼다.



● 이병훈 총괄 사장의 기념사 Speech by ECONET Chairman Bill Lee ②동반대회 기념 촬영 (유니젠) Hiking day (Unizen) ③동반대회 기념 촬영 (유니베라 한국)



On April 3rd, ECONETians celebrated foundation of ECONET Korea surrounded by nature. In this year, a hiking to the Yongmoon Mountain near Yangpyeong in Gyeonggi province was planned in a move to foster challenge spirit to overcome harsh environment. After the hiking, all ECONETians gathered at Bambbul farm near the mountain in which long serving employees were awarded, and speeches by a representative of employees and ECONET Chairman Bill Lee were given. Then ECONETians had an hour of recreation to have fun. This event was truly an occasion to promote a sense of unity among ECONETians.

사우회장의 축사 (네이처텍 김진영 과장)
 Congratulatory remark
 by Jin Young Kim, a representative of employees, Assistant Director at Naturetech)
 장기 근속자 시상 (유니베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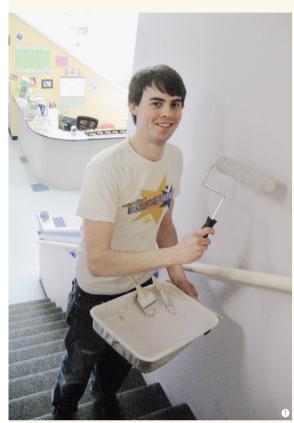
Awarding long service workers (Univera Korea) ⑥행사를 종료하는 화합의 시간





### 2009년 유니베라 미국 지사 창립 기념 봉사활동

### 2009 U.S. Founder's Day Community Service Projects



미국 전역의 에코네시안들은 4월 3일 금요일 창립 기념일을 맞아 유니베라의 창립자 고 이연호 회장의 이웃사랑에 대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가졌다. 세인트 리오의 푸드뱅크에서는 불우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멤피스 푸드뱅크에서는 결식아동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으며, 레이시와 텀워터에서는 소년소녀단체들과 함께 봄맞이 환경정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햄튼 특수케어센터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레이시 유니베라 지사 인근의 4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에서 쓰레기를 치웠으며, 레이시 팀버랜드 도서관에서 책꽂이를 청소하고 책을 정리하는 지루한 작업을 돕기도 하였다. 레프트 풋 오가닉 농장에서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손에 흙을 묻히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 텀와터 보이스 앤 걸스 클럽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라이언 마일스 Ryan Miles helping the group paint the Boys and Girls Club in Tumwater ②레이시 텀벌랜드 도서관에서 아동도서들을 정리 중인 정미정 박사 Mijeong Jeong organizing the children's books at the Lacey Timerland Library 에인트 푸드 뱅크에서, 마리아 로페즈, 태라 아담스, 쎄라 에디슨, 디아나 파스피소, 리디아 브라우넬 Maria Lopez, Tara Adams, Sarah Edison, Deanna Pospisil, & Lidia Brownell cheesing for a picture at St. Leo's Food Bank





4유니베라Southhaven 봉사자들Memphis Foo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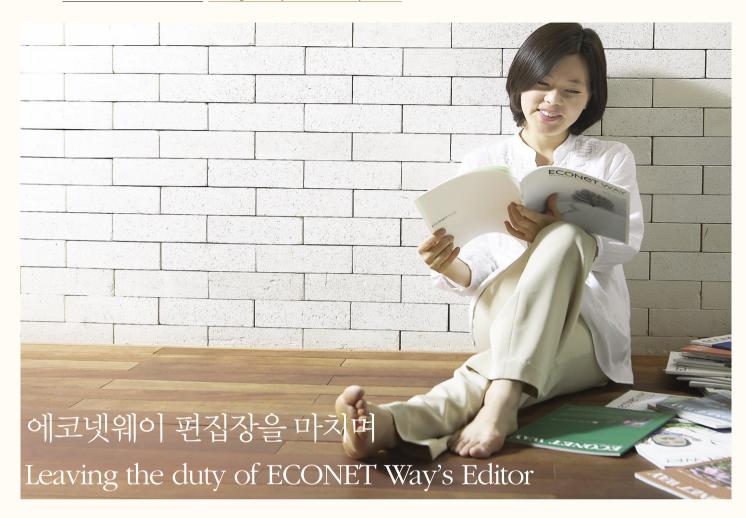




ECONETians on both coasts took time Friday, April 3 to give back to their communities through a variety of service projects in honor of our founder, YunHo Lee, and his dedication to helping others. The service projects consisted of handing out food to less fortunate families at St. Leo's Food Bank, putting together knapsacks for the children in need at the Memphis Food Bank, assisting the Boys & Girls Clubs of Tumwater and Lacey with spring cleaning duties, spending quality time with Alzheimer patients at the Hampton Specialty Care Center, cleaning up garbage and debris at our 40 acre property located just down the road from the Lacey headquarters, assisting the Lacey Timberland Library with tedious tasks of organizing books and cleaning shelves, and rolling up our sleeves and putting our gardening skills to the test at the Left Foot Organics Farm.

● 레프트 풋 유기농 농장
Left Foot Organics
● 쓰레기가 트럭에 한가득 실력 나가고 있다.
Truck load of garbage removed from site.
● 에코넷 소유의 땅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였다.
40 Acre Clean up
● 레프트 풋 오가닉 농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로빈 린제이, 쎄라 워, 멜리사 스토리, 데이린 필립스
Best Robin Lindsey, Sarah Wall,
Melissa Story, and Dalene Phillips
at Left Foot Organics





에코네시안 여러분. 에코넷웨이 편집장 오경아입니다.

그 동안 책임졌던 에코넷웨이 편집장의 임무를 마치게 되 었습니다.

2004년 4월 창간호부터 현재 27호까지, 부족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왔던 에코넷웨이의 편집장 직을 떠나노라니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만 해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모든 일이 어색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원고를 제때 받지 못해 발행 일까지 책을 내지 못 할까 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또렷합니 다. 너나없이 바쁜 동료들에게 원고를 독촉하고, 해외에 얼굴 한 번 뵙지 못한 분들에게까지 원고를 의뢰해야 했습니다.

막상 원고를 받았다 해도 오탈자를 가려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빠질 지경이었으니까요. 겨우 오탈자를 정정해서 상사에게 원고를 보였을 때, "이건 영 어색하네. 저것은 빼고, 여긴 이렇게 수정하세요." 하는 경우, 허탈한

My fellow ECONETians, I am Kyongah Oh, the chief editor of ECONET WAY.

I am to leave my job as the Editorial chief of ECONET WAY. From the first volume published in April 2004 to the  $27^{\rm th}$  volume, I made every volume with devotion, and it meant a lot to me.

Looking back, when I first took this job I was helpless. For I did not know what to do, I made plenty of mistakes and faced many difficulties. I especially remember getting nervous all the time when waiting for the manuscripts to arrive in time worrying that we might not able to finish the book before the deadline. We had to chase after busy colleagues to get articles done and had to ask for an article to somebody overseas who we had never met before.

Even after we collected all of the articles, editing was another obstacle. We scanned articles till it felt like our eyes were about to pop out. Sometimes my boss would not like our work, and say "Drop this, and correct that this way," which left me frustrated. Also, it was very unnerving sometimes when my boss called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wanting to confirm a fact in an article if it was a proven fact.

적도 있었습니다. "이 뉴스, 사실인지 확인해봤어?" 하시며 늦은 밤에 기사를 확인하라고 하실 때는 적이 난감했습니다.

힘들게 교정을 보고 원고를 넘기면 다 됐다 싶다가도 진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편집디자인이 그것인데, 아무리 글이 좋아도 디자인이 나쁘면 독자의 시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작업은 여러 번 수정작업을 거쳐야 했으므로발행일이 닥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아슬아슬한 경우가많았습니다. 막상 디자인 작업을 마치고 인쇄기를 돌리게 됐더라도 처음 찍혀 나온 에코넷웨이를 감수할 때에 비로소 오자가 눈에 들어올 때는 정말 황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후 따끈한 책이 완성되어 내 손에 쥐었을 때,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잘 만 들어졌든 못 만들어졌든 내가 이 책을 만들었지, 하는 뿌듯함 과 함께 휴! 정말 큰 일을 하나 해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동시 에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다소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한 권의 사보를 제작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간다는 사실 을 두루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래 업무를 하면서 동시 에 아무런 대가 없이 기자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기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창간호 때부터 늘 함께 한 김수겸 기자님, 박정아 기자님, 최순미 기자님께 특별한 감사 를 드립니다. 현재 기자직을 맡고 있는 장미라 기자님, 김민정 기자님, 방지영 기자님, 김경미 기자님, 줄리아 기자님, 김석 원 기자님, 그리고 이젬마 기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막상 편집장 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한국, 미국, 중국, 러 시아의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워크샵이라도 했더라면 사기 도 오르고 인화도 도모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건이 어렵다 해도 다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에코넷웨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울리 에코넷웨이가 에코네시안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한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글 | **오경아** 과장 | 비서팀 | 에코넷 한국 홀딩스



Even after we finished editing and sent it to the design team, the real challenge would begin. Even though the articles were great, a bad design can make readers lose interest. The design had to be adjusted several times, and sometimes we had to grapple with it until the very last minute.

Even so, after all these efforts, it is so frustrating to find an error in a newly printed ECONET WAY.

However, the moment that I get hold of a new volume of ECONET WAY with a

fresh smell of ink, nothing would be able to beat the sense of achievement. I felt totally satisfied by the fact that I really made this book whether it was good or bad, and a sense of relief that we have done our job right this time, too.

If I bored you with this long story, it is because I would like all of you to know that so many people had to work hard to publish one volume of ECONET WAY. I sincerely appreciate the hard work of our editors who work in their own department and find time for ECONET WAY without any material compensation. My special thanks to Joseph Kim, Jeongah Park and Sunmi choi who have been working with me from the initial volume.

I am also truly thankful to the current editors-Mira Jang, Minjung Kim, Jiyoung Bang, Kim Kyeong Mi, Julia, Greg Kim and Gemma Yi. As I leave my position, one thing I regret is that we did not have opportunity for all editors at Korea, US, China and Russia to gather in one place. It would have been great to socialize with editors from other countries, and also we could have generated a lot of great ideas.

I hope the editors will continue their great work and make ECONET WAY better although the circumstances are not always favorable. Also, it would be my pleasure if ECONET WAY continues to contribute creating a culture of ECONETians.

By Kyoungah Oh Manager | Secretary Team | ECONET Korea HoLdings

#### 사고(社告) Announcement

그 동안 에코넷웨이 편집 책임을 맡아왔던 오경아 편집장이 이번 제27호를 끝으로 편집장직에서 물러나고 김민선 편집장이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창간호부터 제27호까지 편집을 맡아 수고한 오경아 편집장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에코넷웨이 편집실

Editor in chief Kyoungah Oh is to resign from her position leaving the 27th issue behind as her last. Starting from the next issue of ECONET Way, Minsun Kim is going to fill the post as the new chief editor. We applied the hard work and commitment Kyoungah Oh has shown all the way through the initial issue of ECONET Way to the 27th. ECONET Way Editorial Office





### 퀴즈 퀴즈

## Quiz Quiz

#### ● 이번호 퀴즈

달라진 곳을 찾아주세요. After 사진에는 달라진 곳이 다섯 곳이 있답니다. 이 비밀을 찾으신 분은 After 사진을 복사하신 후 복사한 사진 위에 달라진 5곳을 표시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fter 사진을 스캔하여 전 자문서상에서 표시한 후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 Current issue's quiz

What's different? Look closely and you will find 5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ictures. Those who have found the hidden spots please send us via mail a copy of the "After" picture and circle the 5 places on the copy. (Either that or you can scan the picture with the 5 spots marked and e-mail it to: minsun@namyangglobal.com)

####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2-4 에코넷센터 3층 (우)133-120 에코넷 기업본부 사보 편집실 이메일은 minsun@namyangglobal.com입니다.

The address you should post it to is

ECONET Way Editorial Office, ECONET Center 3rd fl.,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South Korea 133-120

Email to new editor in chief minsun@namyangglobal.com



#### Last issue's winners

선물로 베라스파 핸드크림을 드립니다.

Get a free Vera Spa hand cream for a prize!

에코넷 한국 홀딩스 이정현

네이처텍 김연진, 김태갑 에코넷 미국 홀딩스 이젬마

**알로콥 미국** 피압 폰

유니베라 미국 김미선, 리마 M. 암스트롱, 탐 트립, 주디 길럼

ECONET Korea Holdings Jenny J. H Lee

Natruetech Younjin Kim, Taegap Kim ECONET USA Holdings Gemma Yi Aloe corp USA Pheap Phon

Univera USA Misun Kim, Rima M. Armstrong, Tom Tripp, Judy Gillum

## 에코넷 한국 홀딩스 ECONET Korea Ho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133-120, Korea Tel: +82-2-460-8865, Fax: +82-2-467-9988

### 네이처텍 Naturete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우: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eon, Jincheon-Gun, Chungbuk, 365-850, Korea Tel: +82-43-532-5144, Fax: +82-43-532-5328 www.naturetech.co.kr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우: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Tel: +82-2-460-3100, Fax: +82-2-463-9162

##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www.univera.com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우: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82-41-529-1510. Fax: +82-41-529-1599 www.unigen.net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8300, Fax: +1-360-413-9185

## 알로콥 멕시코(생산)

Aloecorp de Mexico Carretera Tampico-Mante km 89 Gonzalez, Tamaulipas, Mexico Tel: +52-836-27-3-21-46, Fax: +52-836-27-3-21-46

에코넷 가족

**ECONET Family** 

### 유니젠 미국 Unigen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8200, Fax: +1-360 413-9135 www.unigen.net

### 유니베라 미국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7500, Fax: +1-360-413-9150 www.us.univera.com

290 Labrosse Ave. Point-Claire/Montreal Quebec, Canada H9R 6R6 Tel: +1-514-426-2865, Fax: +1-514-693-3425 www.univeracanada.com

### 베라 리조트 (홍콩) Vera Resorts Limited (Hong Kong)

1203, 12/F., Bank of America Tower, 12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Tel: +852-3904-3567, Fax: +852-3904-3568

## 알로콥 미국 Aloecorp USA (Headquarter)

26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shington 98516, USA Tel: +1-360-486-7400, Fax: +1-360-413-9185 www.aloecorp.com

## 알로콥 미국 (생산)

6.5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1-956-262-2176, Fax: +1-956-262-8113

## 알로콥 중국 & 남양 중국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만녕사무실/ Wanning Office/ 万宁办公室

海南省萬寧市禮紀鎮茄新村 南洋蘆薈基地 郵編:571529 Hainan Aloecorp, Jiaxin Village, Liji Town, Wanning, Hainan, China, 571529 Tel: +86-898-6258-5078, Fax: +86-898-6258-5018 http://www.aloecorp.com.cn

## 유니젠 러시아 Unigen-Russia Co., Ltd.

Russia, Primorsky territory, Vladivostok, Prospect Kranogo Znameni 59, office 707 Tel: +7-4232-30-2886, Fax: +7-4232-43-17-78

